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THEME STORY
아트뷰의 시각으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VIEW
작가의 프레임 속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무대 위 재해석된
움직임으로, 때로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변주합니다.
낯선 감각으로 공간을 유영합니다.

ART CURATOR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여정은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끕니다.

BEYOND SEONGNAM
지역예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
성남 그 너머의 본질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 예술가와 예술가 사이
경계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ISSN 2383-8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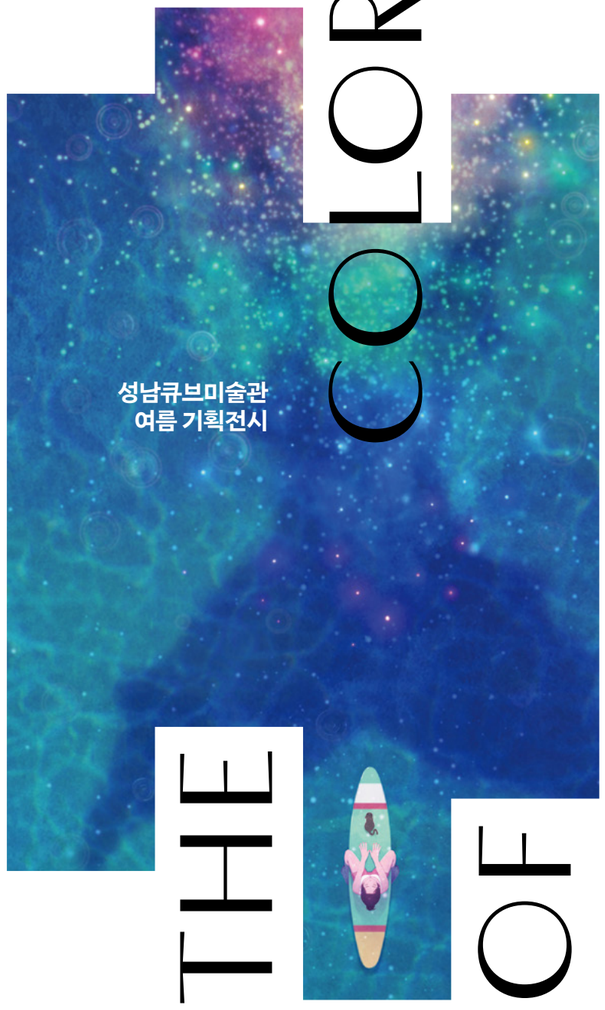
artv
2022 08+09 VOL.164
THE COLORS OF SUMMER
성남문화재단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AUGUST·SEPTEMBER 2022

VOL.
164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THE COLORS OF SUMMER

성남큐브미술관
여름 기획전시

깊이보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R의 법칙으로 이룬 도시 변화

성남생활문화공간 Place C
모두를 위한 문화 놀이터

08
09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중헌/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탈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前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주)유엔젤 제작감독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솔루션 부사장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송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박영일 ㈜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까치회원
장미영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치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파크 콘서트

PARK CONCERT

2022 8/20-10/1 19:30/SAT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8/20	잔나비		
8/27	정재형	김창완 밴드	
9/3	송영주 퀸텟 & 알리	선우정아	
9/10	정훈희	최백호 & 박주원	
9/17	고상지 & 마더바이브	지소울(GSoul)	
9/24	노리플라이	소란	
10/1	자우림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JSFA

주최·주관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 031-711-7762

성남문화재단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마티네 콘서트

MUSIC FROM THE FAIREST ISLE

2022년 3월~12월(총10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18일(목)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

니콜라이 / 오페라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
구노 /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하이라이트
차이콥스키 / 환상서곡 '햄릿'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김광현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이명현

9월 15일(목)
영국컥인, 가장 영국컥인

본 윌리엄스 /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본 윌리엄스 / 종달새의 비상
월튼 /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타

★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박규민

피크닉 콘서트

PICNIC CONCERT

2022.8.12~13 19:30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단대오거리역 앞)

8.12 FRI	8.13 SAT
장필순	다현
	박군
자전거 탄 풍경	박상우
	이성국

주최·주관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문의 031-783-8000

UNIVERSAL EVERYTHING

디지털 세계 속 무한한 삶

화면 너머의 세계는 과연 실존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미디어 아트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씽Universal Everything의 2021년 작품 <인피니티Infinity>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레이디 클레멘치치, 프로페서 마네라, 미시즈 비키 등 디지털 생명체 각자에게 부여된 이름과 성별, 그리고 그들을 규정하는 다양한 직업. 이로 인해 그들은 모두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수백 명의 가상 생명체들은 인피니티 세계 속을 활보하며, 상상을 뛰어넘는 소재와 컬러감,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반짝거린다.

코드를 통해 탄생한 이 개성적 존재들은 끝없는 비디오 아트 워크 속에서 무한한 퍼레이드를 펼친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영원하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닮은 데가 있다. 화면 속에서 음악, 패션, 건축 등 우리의 보편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내재한 채 디지털 생명체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지난 2004년 영국 그래픽 디자이너 매트 파이크Matt Pyke가 설립한 이 스튜디오에는 몇몇 고정 멤버 외에 애니메이터, 건축가 등 프로젝트에 따라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그들은 신기술을 탐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자연의 형태를 구축한다. 영혼을 담은 기술을 추구하며 모션 캡처 아트 워크를 구현하여 각각의 개성 넘치는 생명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다.

화면이 꺼지고 난 뒤에도 그 너머의 세계에서 그들은 계속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묘한 여운이 남는다.

글 **임보연**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사진 제공 **Infinity** (2021) by Universal Everything

Contents

THEME STORY

04 **인사이트**

10 **미리보기**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서기
성남큐브미술관 여름 기획전시

12 **미리보기**
다섯 가지 여름 바이브
디지로그展: 해방

18 **아티스트 토크**
희망의 동화를 그리다
유미영 작가

24 **미리보기**
예술이 주는 위안의 힘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VIEW

28 **깊이보기**
묘약보다 강한 진짜 사랑의 힘
오페라 <사랑의 묘약>

32 **미리보기 1**
그 숲에는 음악이 흐른다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

34 **미리보기 2**
기억과 기다림이 교차하는 간이역
연극만원 <씨어터맨>

36 **다시보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ART CURATOR

42 **일상에서의 디자인**
불을 담다
시간과 공간을 은유하는 빛

46 **트렌드**
미디어로 증강된 도시의 문화적 표면
도시의 새로운 얼굴, 미디어 파사드

50 **기술과 예술**
안 되는 건 안 돼, 잘하는 거 하자
인공지능 시대와 인간

54 **영화 속 클래식**
완벽을 향하여
<더 배트맨>과 '아베 마리아'

56 **미술 길라잡이**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할까
컬렉터의 길: 취향을 찾아서

58 **트렌드**
아트 비즈니스에 진심입니다
유통업계의 미술 시장 진출 본격화

60 **트렌드**
우리가 기다린 음악가들
한국인 연주자들,
상반기 국제 콩쿠르 석권

64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R의 법칙으로 이룬 도시 변화
싱가포르 클락키의 숨겨진 위트

BEYOND SEONGNAM

74 **성남의 공간**
모두를 위한 문화 놀이터
성남생활문화공간 Place C

78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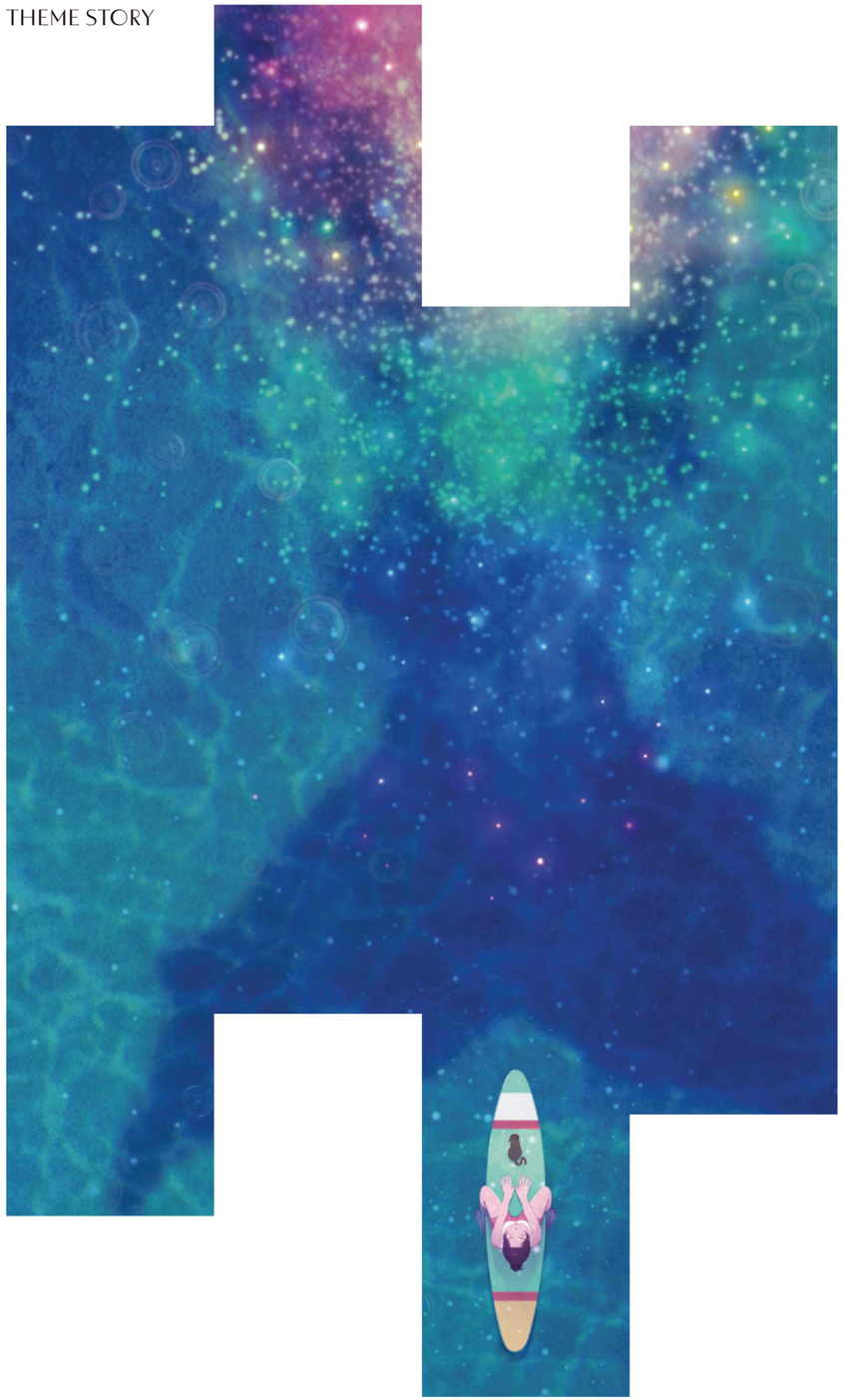
80 **캘린더**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AUGUST·SEPTEMBER 2022 VOL. 164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격월간 아트뷰 2022년 08+09월호 **통권** 164호(비매품) 2022년 8월 1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신상진 **발행인** 서재섭 **편집인** 최현희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팀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주)에이치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SUMMER· THE COLORS OF

성남큐브미술관
여름 기획전시

10 **미리보기**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서기
성남큐브미술관 여름 기획전시

12 **미리보기**
다섯 가지 여름 바이브
디지로그展: 해방

18 **아티스트 토크**
희망의 동화를 그리다
유미영 작가

24 **미리보기**
예술이 주는 위안의 힘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째찌 작가, <고래의 비>

● 미리보기

SUMMER EXHIBITION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서기

성남큐브미술관 여름 기획전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치유'와 '휴식'의 가치는 날로 상승 중이다. 해외 언론에서도 'Hitting Mung' 트렌드로 소개할 정도로 익숙해진 키워드 '멍 때리기'나, 코로나19 이후 확산 중인 식물 키우기, 시골의 삶을 동경하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역시 정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멘털 헬스 트렌드와 맥락을 같이한다. '갓생'을 외치며 치열하게 달리던 한편에서는 번아웃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재충전의 에너지를 절실히 갈구하는 것이다.

'불멍' 이나 '숲멍'의 인기, 혹은 독특한 멍 때리기 콘셉트로 '편안함'의 가치를 전달하며 화제를 모은 시몬스 광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각적인 콘텐츠가 전해주는 정서적 만족도와 안정감은 상당하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시각예술을 관람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멍 때리기 좋은 감상 포인트 7곳'이 회자되었을 정도로,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내려놓고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미술관과 전시장은 이제 현대인의 새로운 힐링 스팟으로 자리한 모습이다.

성남큐브미술관 역시 올 한 해 코로나 블루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위안의 큐레이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식물과 정원, 힐링의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던 6월의 기획전시 <식물키우기>에 이어, 7월부터는 <디지로그展 : 해방>과 성남중진작가전 <유미영 : 잇고 또 잇고>, 미술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이 다채로운 색감과 구성으로 여름날의 휴식을 선사한다. 우선 그라폴리오 신에서 명성 높은 일러스트 작가들의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에 트렌디한 디지털 아트를 더한 <디지로그展 : 해방>(7.15~10.2)은 초록 숲의 그린, 여름의 노랑, 해방의 블루를 담은 각각의 섹션 속에서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전시장 한구석마다 자리한 포토스팟에서 지금 순간의 느낌을 기록하는 것도 놓치지 말 것. '혼미(혼자 미술관 가기)'를 즐기는 MZ세대라면 매력을 느낄 감성 포인트가 가득한 전시다.

다음은 유미영 작가의 성남중진작가전(8.5~9.25)이 열리는 반달갤러리. 전시장에서 관객을 기다리는 것은 한없이 포근한 녹색의 물결이다. 마치 캔버스 위에 한 코 한 코 뜨개실을 떠 올린 듯, 따뜻한 감성으로 서정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유미영 작가는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순환을 이야기한다. 특히 작가가 작품 전반에 걸쳐 가장 즐겨 사용하는 중심 색채인 녹색은 작가와 관객 모두에게 치유의 감성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손끝에서 아련한 추억으로, 푸르른 희망으로 화한 작품 <시골집>을 바라보노라면, "색은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라던 칸딘스키의 말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재료와 기법에 대한 치열한 탐색의 흔적, 그리고 우리 내면을 어루만지는 '색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마지막 순서는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7.22~9.25)이다. 미술관 소장품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소개하는 이 전시는 김호민, 민재영, 박영대, 박형진, 서성근, 양수연, 유승호, 이채영, 이호억, 최혜인, 하루K 등 11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작은 쉼을 선사한다. '마음보양'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올여름에는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에서 나만을 위한 작은 케렌시아querencia를 만들어본다면 어떨까.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디지로그展: 해방> 전시 전경

FIVE SUMMER VIBES

다섯 가지 여름 바이브

디지로그展: 해방

- GREEN VIBES
- CHILL VIBES
- FUN VIBES
- MAGICAL VIBES
- BEYOND VIBES

최근 가구 분야에서 무형의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크기, 모양, 색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의 빛, 온도, 향기 등을 조정함으로써 정서적인 기후를 디자인한다는 의미다. 지난 7월 문을 연 <디지로그展: 해방>은 유무형의 작품 130여 점을 통해 다섯 가지 여름 바이브를 선보인다. 각 공간에 배치된 작품들은 관람객이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정서적인 기후를 단번에 바꿔준다. 때로는 청량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1

GREEN VIBES

이번 전시의 부제인 해방, ‘Time to Unlock’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린 바이브 존. 이름에 걸맞게 싱그러운 식물로 꾸며진 벽면과 푸릇한 색감의 그림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수채화, 분채화, 디지털 페인팅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배경으로 입체적인 사진을 남겨보자. 참고로, 바닥에 붙은 QR 코드를 스캔하면 링크를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이 움직이는 AR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TO UNLOC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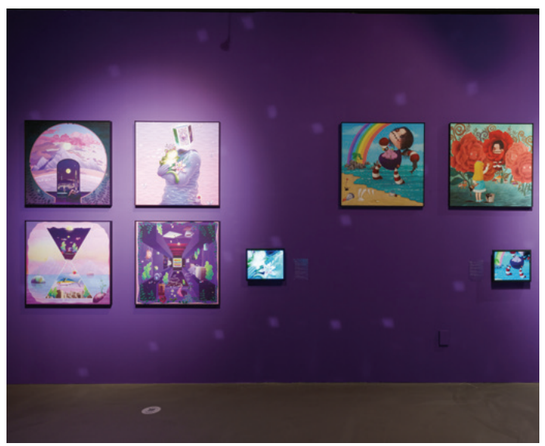
CHILL VIBES

일상과 상상, 그 사이에 위치한 칠 바이브 존은 반복되는 하루 중 행복한 기분을 선사하는 순간들을 기록한다. 패브릭마다 세탁기 안에 들어간 고양이, 주방에서 장난치는 고양이,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 등 반려 동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아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해당 존에서는 아티스트 'kimok'의 드로잉에 관람객의 감성을 덧입히는 컬러링 체험도 진행 중이다.

3

FUN VIBES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펀 바이브 존은 축제를 연상시키는 공간이다. 스페셜 아티스트인 펭수가 입구에서 인사를 건네고 NFT 아트로 구현된 세상 속에서 흥겹게 움직인다. 알록달록한 월블록으로 나만의 메시지를 남겨보고, 작은 사막여우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거나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다니는 그림을 보며 다양한 피서법을 간접 체험해 보자.



4

MAGICAL VIBES

신비로운 보라색 불빛이 깜빡이는 매지컬 바이브 존. 상상의 경계를 넘어 환상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 시간이다. 아티스트 UID, 현현, 양은봉, SOHI, tami.nosi, 앤조이, 소나가 자신만의 화법으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특정 감정들을 표현해낸다. 그들의 초현실적인 작품들을 감상하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보는 건 어떨까.

디지로그展: 해방
7월 15일~10월 2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031-783-8000

5

BEYOND VIBES

마지막, 맑은 하늘색이 감도는 비욘드 바이브 존에서 내면의 페르소나를 찾아보자. 푸른 바다와 구름이 넘실대는 이 공간에서 만큼은 억압되었던 일상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본연의 감정에 집중해본다. 사소한 관계, 사물, 일에 얽매이지 않는 순간 작품 너머의 해방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정교한 장미로 장식된 포토존은 이곳에 들어서는 모두를 화려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글 **김호경**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희망의 동화를 그리다

유미영 작가

YU MI YOUNG

한 가닥 실이 실타래가 되고
바늘을 만나 뜨갯것으로 거듭나듯,
우리의 삶은 절묘하게 이어진다.
유미영 작가의 포근한 작품들을 결속한
성남중진작가전 2 <유미영: 잇고 또
잇고>가 8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열린다.

성남중진작가전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45세 이상, 60세 이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지역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님은 어떤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싶으신가요?

긍정과 치유로 승화된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예술가가 작업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보내주신 성원이 다음 작업에 영향을 끼치곤 해요. 제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해석을 관람객이 들려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 전시는 제가 의도한 것과 그동안 관람객들의 반응을 함께 응집해 좀 더 농축적으로 펼쳐 보이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실이나 상처든 희망적인 자생력으로의 치환을 기원했어요. 저변에서 사라져가거나 숨죽인 저마다의 소중한 그리움이 돌아오고 행복한 온기를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품이지만 또한 모두의 작품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 <잇고 또 잇고>가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명확히 담고 있는 듯합니다.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우선 제 작품의 주제인 실과 실타래, 뜨개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은 시작점을 의미해요. 첫발을 딛는 것처럼 서툴고 부족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자라는 만큼 내가 뿜어내는 한 가닥 실도 함께 늘어나죠. 그렇게 한 가닥이던 실은 뭉치인 실타래가 됩니다. 이 실타래를 풀어 뜨개질에 임하는 것은 실이 가진 유기적 물체성, 즉 씨실과 날실이 교합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바늘을 만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목표인 뜨갯것을 추구하는 순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질하며 한 코 한 코 이어가는 일련의 모습이 어떤 시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실의

1

2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하잖아요. 그렇지만 내면의 시간을 헤아리다 보면 결코 이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현재에 있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방향을 틀기도 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잇고 또 이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잇다' 혹은 '이어지다' 이렇게 하나의 서술어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계속 연결된다는 여운을 주고 싶어서 '잇고 또 잇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실타래가 뜨개질을 통해 뜨갯것으로 나아가는 그 동작성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삶의 함축은 무한하고 절묘하죠.

뜨개질 행위를 '존재의 인과에 대한 탐색'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부재에 대한 아픔을 안고 성장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불안해지는 등 현실이 버거웠어요. 마치 결핍투성이인 자아가 성장을 멈춘 모습으로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그림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술 안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집착처럼 강했죠. 뭔가 굉장히 치열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어요. 이를 벗어나거나 회피한다기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끊어질 듯 위태로울 때마다 흘러가는 실 가닥을 붙잡고 동여매며 견디었죠. 자신에게 몰두하며 나를 해부했던 것 같아요. 실과 실타래를 주제로 만나기까지 내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탐색 과정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존재의 인과에 대한 탐색'이라는 표현이 묵직하고 심오해 보이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보편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갯것을 추구한다"는 작가님의 말을 통해 '뜨갯것'에 작가님의 삶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뜨갯것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많으셨던 어머니께서 바느질감과 뜨개질감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특히 겨울에는 저희 남매들의 옷과 장갑, 목도리 등을 뜨셨기 때문에 항상 실 뭉치가 바구니 한가득 담겨 있었죠. 그 시절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당연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기억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유일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빈자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의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깊어집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연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뜨개질처럼 한 코 한 코 어머니를 느끼고 있어요. 날렵하게 바늘을 이끌던, 거칠지만 따사롭던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제 삶의 원천입니다.

작가님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감은 무엇인가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또한 살아온 궤적과 잇닿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첨단화하고 만 현실에서 쓸모없어진 물건이 많아요. 과거에는 애지중지 쓰이던 귀한 물건이었지만 이제 잊혀가는 거죠. 수공예에 해당하는 뜨개질 역시 대량 생산으로 대체되어버린 분야입니다. 오래전 발간된 책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나 명칭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은 사라져버린 물건의 이름이나 지명 등이에요. 이를 작업에 접목해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듯 누군가의 발견을 도와주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1,2 작가의 작품은 뜨개질과 유사한 회화적 기법에 바탕을 둔다. 물에 불린 한지를 잘게 찢어서 말리고 젯소에 버무려 반죽한 뒤, 스케치 위에 올려서 단계적으로 형태를 잡아가며 색다른 질감과 입체감을 표현한다

가장 최근 전시는 2020년의 온라인 아트 페어였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누군가 '실로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원래 예술의전당에서 전시가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가 되었어요. 주최 측에서 온라인 아트 페어로 전환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을 실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재료와 작가 노트 등을 참고하다 보니 실로 그렸다고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도구적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실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재료에 실이 포함되어 있고 주제에 실타래나 뜨개질을 함의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화 재료로 한지실뿐 아니라 한지를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지를 활용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2017년 초까지 도자기나 막사발을 그리는 유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화가뿐 아니라 당시에도 유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많았고 이미 저보다 앞서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

ENCOURAGE HOPE

"녹색엔 내면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색감 자체만으로도
어떤 감정의 기복을
잠재워주곤 합니다"

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 고뇌했습니다. 고민이 깊었던 만큼 마음의 각오도 강하게 가졌죠. 왜냐하면 작가가 이전의 작업을 접고 완전히 다르게 변모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문득 대학원에서 수학할 때 존경하던 교수님의 한지 작업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업을 동경했는데 당시에는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워낙 스케일이 컸고, 제가 여러 경험을 축적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감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무작정 시작했어요. 누구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처음에는 어설프기도 했지만, 한 가지를 지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점차 보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파고들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훨씬 작업이 탄탄해졌죠. 물에 불린 한지를 결결이 잘게 찢어서 말리고 젯소에 버무려 반죽합니다. 이 한지 반죽을 스케치 위에 올려 단계적으로 형태를 잡아나가요. 덕분에 작품에서 색다른 질감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새 작품을 아트 페어에서 처음 선보였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보통 아트 페어에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진심으로 응원을 건네는 말씀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무수한 점도 눈에 띕니다.
제가 직접 뜨개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뜨개질의 감성을 표현한 회화이기 때문이에요.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께 뜨개질만의 고유한 느낌을 심어드리면서 어떤 기억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뜨개질과 유사한 회화적 기법을 궁리해야 했죠. 그래서 점묘법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는 과정과 뜨개바늘로 한 코 한 코 떠가는 과정이 일치해요. 점묘법의 호흡과 뜨개질의 호흡도 유사하죠. 작품을 보시면서 무수한 점을 찍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죠. 이게 제 작업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주로 녹색을 띠는 작품이 많습니다. 푸른색을 사용하는 연유가 있다면요?
녹색은 늘 옳다고 여길 만큼 지향하는 색입니다. 부드럽지만 엄격한, 주장이 강하지만 배려가 깊은 색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녹색엔 내면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아무래도 어떤 경험이나 추억에서 비롯한 것이겠죠. 푸른 색감 자체만으로도 어떤 감정의 기복을 잠재워주곤 합니다. 치유를 해주는 듯해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자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녹색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색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피로가 쌓여요. 특히 점묘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보니 계속 캔버스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거든요. 녹색은 시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겸하니 작업을 오래 해도 피곤함이 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공들인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신작 <country house(시골집)>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살았던 시골집을 떠올리며 다른 작품에 비해 몇 배 이상 공들여 제작했어요.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 완성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만큼 시간도 많이 걸렸죠. 행복한 추억이 많은 집이었지만, 떠나기 직전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자꾸 떠올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꿈속에 가끔 등장하기도 했죠. 한 번쯤은 작품을 통해 당시를 직시하며 편안해지고 싶었습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전시실에 작품을 배치할 때 공간 구성과 순서에도 신경을 쓰실 텐데요, 이번 반달갤러리 전시에서 관람객에게 당부하고 싶은 감상법이 있다면요?
완전한 평면 작업이 아닌 여러 혼합 재료를 활용한 작품이다 보니 제작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재료와 도구 등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1층에서 쭉 관람을 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실 텐데, 2층에서 재료와 기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작품 이미지 너머, 또 다른 방식으로 제작업과 교감하며 교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작가님이 존재의 인과에 대한 탐색을 거듭하며 변화해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우신 계획이나 그려나갈 또 다른 작품 세계가 있으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점은 모든 게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계추처럼 앞으로 향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때론 나아감을 만끽하며 기쁜 성취감에 도취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시간은 우리에게 뒷걸음질 같은 전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시간 자체는 뒤로 향하지 않죠. 좌절에 지지 않고 실패를 수용하게 될 때 현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통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만큼 나름대로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열정이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열정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법이죠. 주제나 기법에서 특별하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현재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미진한 부분, 또 절제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싶습니다.

글 **김민주**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예술이 주는 위안의 힘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성남큐브미술관은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을 개최한다. 소장품주제기획전은 미술관의 소장품 일부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대중에게 선보이며, 소장품 수집과 구성 맥락의 긴 호흡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 <마음보양>은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피로와 염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자그마한 쉼을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유승호, 아~호, 2018, 종이에 잉크, 122x160cm(details)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7월 22일(금)~
9월 25일(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최혜인, 붉은 물, 2019, 무표백 장지에 백토, 안료, 130x162cm

COMFORT

현대인들은 지친 자신을 채우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양保養한다. 흔히 보양 하면 보양식 문화를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내적 보양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술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치유와 위안일 것이다.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무언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일상에 지친 우리의 내적 허기를 채운다.

이번 전시는 김호민, 민재영, 박영대, 박형진, 서성근, 양수연, 유승호, 이채영, 이호억, 최혜인, 하루K 등 11명 작가들의 작품 11여 점을 선보인다. 출품된 작품들은 현대인들의 내적 문제들을 탐색하며, 예술을 위안의 도구로서 가까이 가져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작가들의 이러한 지성적 노력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얻는 경험들을 강조한다.

이번 전시가 보는 이에게 온전히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남큐브미술관은 대중과 소통하는 미술문화공간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글 **김태은**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팀

마음보양

2022.7.22(금) - 9.25(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유승호, 아~호, 2018, 종이에 잉크, 122x160cm(details)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팀 031-783-8142~9

노블아트오페라단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마법이 아닌 현실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

G. DONIZETTI

L'elisir D'amore

사랑의 묘약

2022.8.5 Fri — 6 Sat Fri 19:30 | Sat 15: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신선섭 | **지휘** 최영선 | **연출** 이회수 | **무대** 신재희 | **조명** 강호상 | **의상** 박선미

김신혜 손가슬 서필 이재식 박정민 김종표 전태현 유명헌 이결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티켓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 **문의**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VIEW

Marty Sohl/Metropolitan Opera

28 **깊이보기**
묘약보다 강한 진짜 사랑의 힘
오페라 <사랑의 묘약>

32 **미리보기 1**
그 숲에는 음악이 흐른다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

34 **미리보기 2**
기억과 기다림이 교차하는 간이역
연극만원 <씨어터맨>

36 **다시보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묘약보다 강한 진짜 사랑의 힘

오페라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장면.
아디나 역은 안젤라 게오르규가 맡았다

Marty Sohl Metropolitan Opera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1832년 밀라노 초연)은 가장 인기 있는 희가극의 하나다. 외젠 스크리브가 쓴 프랑스어 대본을 이탈리아어로 각색했다. 소재가 사랑의 묘약이다 보니 황당한 면도 있다. 약을 마신 사람의 몸속에서 작용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마시지 않은 상대가 약을 마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러나 켈트 신화 <트리스탄과 이졸데>(바그너의 오페라로는 도니체티보다 한참 뒤에 나왔다)에서는 이 약이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운명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마음을 읽는 투시력을 갖는다든지 하는 엉뚱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도 한다. 따라서 <사랑의 묘약>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수한 마음의 촌놈이 획득한 사랑의 승리'다. 가난한 마을의 네모리노(테너)는 너무 순진해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청년이다. 이 순진남이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상대가 하필이면 지주의 딸인데다가 예쁘고 똑똑한 아디나(소프라노)다. 아디나는 네모리노의 순수함을 알지만 자신의 배필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도 안다. 그래서 구애를 무시해버린다. 그런데 순회 부대 지휘관 벨코레(바리톤 혹은 베이스)가 아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다. 다급해진 네모리노 앞에 떠돌이 약장수 둘카마라(베이스 혹은 바리톤)가 나타난다. 네모리노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에게 접근해 아디나가 읽어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오는 것과 같은 묘약을 팔라고 한다. 둘카마라는 싸구려 포도주를 묘약이라고 속여 팔면서 만 하루가 지나야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에 자신만만해진 네모리노를 본 아디나는 약이 올랐는지 벨코레와 당장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한다. 절망에 빠진 네모리노에게 둘카마라는 약효를 빨리 보려면 묘약을 더 먹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돈이 없는 네모리노는 급한 마음에 벨코레의 부대에 입대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받아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된다. 이 사실을 안 아디나는 뒤늦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입대 계약서를 되사서 네모리노에게 돌려준다. 두 주인공이 행복하게 맺어지는 가운데 둘카마라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마을을 떠난다.

오페라 부파가 아닌 이탈리아 희가극

도니체티는 속필의 다작가여서 70여 편이나 되는 오페라를 남겼다. 그중에는 희가극도 많은데,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은 <연대의 딸 *La Fille du Régiment*>1840, <돈 파스콸레 *Don Pasquale*>1843와 더불어 그의 3대 희가극으로 불린다. 그런데 세 작품의 세부 장르가 조금씩 다르다. 정통 이탈리아 희가극은 '오페라 부파'라고 부른다. 광대의 오페라라는 뜻이다. 부파에는 공식이 있다. 결혼을 원하는 두 남녀가 있고, 이를 방해하는 부친이나 후견인이 희극적 배역으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실내에서 벌어지며 2막 구성이 표준이다. 그런데 <사랑의 묘약>은 이중 몇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 우선 부친이나 후견인이 안 나온다. 모든 결정권은 젊은 처녀 아디나가 쥐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외에서 벌어진다는 점도 특이하다. 따라서 오페라 부파보다는 선남선녀가 아기자기한 사랑놀음과 작은 오해 끝에 맺어지는 '파스토랄(목가극 혹은 전원

오페라 <사랑의 묘약>

Production
예술감독 | 신선섭
지휘 | 최영선
연출 | 이회수
무대 | 신재희
조명 | 강호상
의상 | 박선미

Cast
아디나 | 김신혜 · 손가슬
네모리노 | 서필 · 이재식
벨코레 | 박정민 · 김종표
둘카마라 | 전태현 · 유명헌
잔네타 | 이결

연주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8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8월 6일(토)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Cory Weaver/Metropolitan Opera 1

Marty Sohl/Metropolitan Opera 2

극)'에 가깝다. 반면 <돈 파스콸레>는 정통 오페라 부파이고, <연대의 딸>은 프랑스어 대본의 오페라 코미크에 해당한다. 교과서적인 틀을 살짝 깨뜨린 오페라이기에 인습을 벗어났지만 더 흥미진진한 구도를 갖게 되었다.

로맨틱 코미디의 남녀 역할을 바꿔버린 참신성

드라마 속 슬픈 사랑은 주인공의 죽음이나 이별로 마무리된다. 죽음으로 끝나면 비극, 이별로 끝나면 멜로드라마라고 한다. 반면 주인공들이 행복한 사랑을 맺는 장르를 '로맨틱 코미디'라고 한다. 해피 엔딩인 것만으로도 코미디인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 로맨틱 코미디의 흔한 구도는 가난한 집안 처녀가 취직했는데 오너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고, 신분 차이로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극적으로 맺어진다는 식이다. 다시 말해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가진 것 없는 여자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연애담이 그 전형이다. <사랑의 묘약>도 그 공식을 닮았다. 다만 남녀의 역할을 살짝 바꿔버림으로써 색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잘난 여자 아디나와 별 볼일 없는 남자 네모리노! 여인의 포용으로 남자를 감싼다는 점에서 마치 다른 유형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역시 참신하다.

순수의 승리

대부분의 오페라 부파에서 남녀 주인공은 꾀를 내어 방해자들을 속이고 결혼에 골인한다. 얄미울 정도다. 그런데 네모리노를 보라. 그는 잔꾀를 부리기에는 너무나 순진하다. 사랑의

1,2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사랑의 묘약>
2 떠돌이 약장수 둘카마라(시모네 알라이모)에게 속아 가짜 묘약을 사는 네모리노(마시모 조르다노)

L'ELISIR D'AMORE

묘약을 사 마신다는 것이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지만 알고 보면 약장수에게 사기당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처럼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순수에 대한 동경을 살짝 자극한 것이 <사랑의 묘약>의 성공 비결이다. 떠돌이 약장수 둘카마라가 가난한 청년 네모리노에게 판 것이 싸구려 포도주든, 에비앙 생수든 그 화학적 성분으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이 오페라의 관심사가 아니다. 자기보다 월등한 조건의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네모리노가 그걸 진짜 사랑의 묘약이라 믿고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때, 네모리노가 삼촌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걸 미리 알게 된 동네 처녀들이 네모리노 주변에 모여드는 걸 본 둘카마라가 이게 웬일이냐 하고 헷갈렸을 때, 질투심을 느꼈던 아디나가 네모리노의 진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칠 때 그 액체의 본질은 진짜 사랑의 묘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관객들도 어느새 가짜 약에 속는 네모리노의 어리석음을 탓할 생각은 사라지고 그 효험을 믿는 순진무구함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며, 까칠해 보이던 아디나가 네모리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로 결심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매력적인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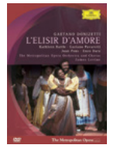
아무리 흥미진진한 드라마라도 좋은 음악이 받쳐주지 않으면 명작 오페라가 될 수 없다. 조울증 탓에 작품마다 편차가 심했던 도니체티지만 <사랑의 묘약>은 각별한 선율미와 극의 전개에 어울리는 노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고, 1막 전주곡부터 막이 내릴 때까지 지루할 틈이 없다. 1막의 도입부에서는 어수룩한 네모리노와 똑 부러지는 아디나의 대조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며, 벨코레의 노래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군인다움과 거들먹거림을 동시에 담아냈다. 네모리노의 구애를 거절하는 아디나와의 이중창에는 그럼에도 그가 싫지 않은 속마음이 드러난다. 1막 2장은 약장수의 시간이다. 요란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둘카마라는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들어보았음직한 돌팔이 약장수를 연상시킨다. 이어서 둘카마라와 네모리노의 이중창이 절묘하게 펼쳐지고, 아디나와 네모리노가 밀고 당기는 이중창 역시 정감 넘치는 명장면이다. 1막 마무리에 나오는 네모리노의 '아디나, 믿어줘요'는 우리 심장을 두드리는 듯 안타깝다.

2막 초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이탈리아판 '처녀 뱃사공'이 둘카마라와 아디나의 과장된 노래로 펼쳐진다. 아디나가 둘카마라를 통해 네모리노의 진심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노래는 순수한 감정으로 가득 찬다. 그다음부터는 희가극임을 잊게 만드는 감동의 순간이 이어진다. 네모리노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도니체티의 통찰력으로 삽입했다고 한다. 네모리노가 아니라 아디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본 네모리노의 노래다. 네모리노가 차라리 군대에 가겠다고 외치자 비로소 격한 사랑을 털어놓는 아디나의 노래에서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희열을 느끼게 된다.

글 **유형종**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 및 무용 칼럼니스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래식 감상실 무지크바움에서 음악·무용·인문학·영화 관련 강좌와 동호회를 진행한다. 저서로 『불멸의 목소리』 남성편과 여성편, 『신화와 클래식』 등이 있다.

8월 5일과 6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만날 수 있다

추천 영상물



1991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실황

존 코플리(연출), 제임스 레바인(지휘), 루치아노 파바로티(네모리노), 캐슬린 배틀(아디나), 엔초 다라(둘카마라), 후앙 퐁스(벨코레)

역대 최고의 네모리노로 자타가 공인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두 번째 <사랑의 묘약> 영상. 큰 덩치 탓에 더욱 천진해 보이는 파바로티의 연기와 청아한 미성은 단연 압권이고,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날렵한 흑인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도 매력적이다.

2005년 빈 국립 오페라 실황

오토 쉔크(연출), 알프레드 에슈베(지휘), 롤란도 비야손(네모리노), 안나 네트렙코(아디나),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둘카마라), 레오 누치(벨코레)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 DVD. 비야손과 다르칸젤로의 희극 연기가 대단하고, 네트렙코는 목소리에 어울리는 배역이 아님에도 비야손과 찰떡궁합을 과시한다. 밝은 분위기의 무대는 가장 전원극답다.

2012년 바덴바덴 축제극장 실황

롤란도 비야손(연출), 파블로 에라스-카사도(지휘), 롤란도 비야손(네모리노), 미아 페르손(아디나),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둘카마라), 로만 트레겔(벨코레)

위 영상에서 네모리노를 부른 비야손은 성대 이상이 생기자 오페라 연출에 손을 대는데, 덕분에 아예 연출까지 맡은 실황이다. 배경을 할리우드의 서부 영화 촬영장으로 잡은 기발한 해석으로, 원래 이야기를 잘 알수록 더 즐길 수 있다.

그 숲에는 음악이 흐른다

PARK & PICNIC CONCERT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

푸른 숲, 맑은 공기, 음악이 함께하는 여름밤의 야외 음악회. 2012년 이후 매년 여름 성남 중앙공원을 찾아왔던 파크 콘서트는 도심 속에서 자연과 음악, 관객이 어우러지는 무료 야외 콘서트다. 클래식, 대중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무대로 성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파크 콘서트, 그리고 성남 본도심 주민들의 음악 나들이를 책임졌던 피크닉 콘서트가 올여름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다.

여름 햇살이 조금씩 뜨거워질 즈음이면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성남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아오는 파크 콘서트. 교외 어딘가로 멀리 떠나거나 예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벤트가 성남문화재단의 파크 콘서트다. 야외 공연장이 위치한 성남 중앙공원은 잔디 광장과 인공 호수, 아름다운 산책로 등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공간이고, 공원 내부에 자리한 야외 공연장 역시 세계 어느 야외 페스티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자연과 시설이 돋보인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하기에 최적인 완만한 경사의 푸른 잔디밭, 수도권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3년 만의 재회, 파크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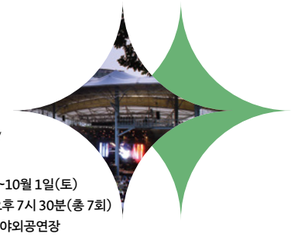
2019년 이후 팬데믹으로 멈춰 섰던 파크 콘서트가 드디어 3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무더위의 기세가 점차 꺾이는 8월 20일부터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7회에 걸쳐 펼쳐지는 올해의 라인업 역시 탄탄하다. 독보적인 감성의 밴드 잔나비(8월 20일)를 시작으로, 전천후 뮤지션 정재형과 김창완밴드(8월 27일),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퀸텟 & 알리,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가수 선우정아(9월 3일)의 무대가 이어진다. 9월 10일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가요의 레전드, 정훈희와 최백호를 만날 수 있다. '낭만의 음유 시인' 최백호는 국내 최고의 집시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박주원과 멋진 컬래버를 보여줄 예정이다. 반도네온과 비브라폰이 어우러진 환상의 앙상블을 보여줄 고상지 & 마더바이브와 가수 지소울(9월 17일), 노리플라이와 소란(9월 24일)에 이어, 자우림과 '한국의 힙'을 전파하는 현대무용 그룹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재즈밴드 JSFA(10월 1일)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공원에서 즐긴다, 피크닉 콘서트

파크 콘서트에 앞서 8월 12일과 13일에는 피크닉 콘서트가 기다린다. 성남 수정구·중원구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소풍처럼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로 시작한 피크닉 콘서트는 그동안 7080 명가수부터 신세대 아이돌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 콘서트로 큰 사랑을 받았다. 올해는 성남시 수정구의 옛 공단 부지를 새롭게 시민 공원으로 조성한 제1공단 근린공원 야외공연장(단대오거리역 앞)에서 관객을 만난다.

첫 순서인 8월 12일은 한결같은 생명력으로 서정과 위안의 음악을 선사했던 포크 음악에 푹 젖어드는 날이다. '포크 음악의 여제' 장필순과 한국 포크 그룹의 대명사 자전거탄풍경이 여전히 생생한 그들만의 감성을 노래한다. 다음 날인 13일은 남녀노소 모두가 신나게 '흥'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 '한잔해'의 가수 박군을 비롯해,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대활약하며 국민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다현, 박상우, 이성국의 명품 보컬이 여름밤을 시원하게 적셔줄 것이다. 긴 팬데믹의 끝에서 더 커진 기쁨으로 만날 파크·피크닉 콘서트 - 주말마다 찾아오는 여름 선물, 그 즐거운 기다림은 이제 시작이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preview

파크 콘서트
8월 20일(토)~10월 1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총 7회)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031-711-7762

피크닉 콘서트
8월 12일(금)·13일(토) 오후 7시 30분
수정구 제1공단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031-783-8000

기억과 기다림이 교차하는 간이역

연극만원 <씨어터맨>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연극들을 가까이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滿員 시리즈. 2022년 만원 시리즈의
8월 무대를 장식하는 작품은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기차역을 배경으로,
삶의 따스한 순간과 기억들을
아름다운 바흐의 선율과 함께 그려내는
음악극 <씨어터맨>이다.

음악극 <씨어터맨>의 배경은 하루에 상행과 하행, 단 두 차례만 기차가 서는 한적한 시골 간이역이다. 이 공연에서 시골 간이역이란 배경은 여러모로 극을 이루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기차역이라는 장소 자체가 늘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극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늘 분주한 도시의 역사驛舍와는 달리 한적하고 고요한 장소이다 보니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하루에 딱 한 번 오고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이곳을 찾거나,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남모를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작품의 드라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씨어터맨>은 극중 작가이자 스토리텔러인 조현재가 작품 구상을 위해 찾은 시골 간이역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 사연을 음악감독 송은솔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액자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6개의 에피소드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바흐의 선율과 함께 무대 위에 펼쳐진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연상연하 커플 양성훈과 이애경,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가슴 아파하는 두 자매 엄소연과 승희, 어릴 적 열차 사고로 떠나보낸 친구를 그리워하며 때가 되면 이곳을 찾는 진민범,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간이역을 찾은 서영과 그의 친구 수지, 결코 잊지 못할 첫사랑을 기다리며 삶의 마지막까지 이곳을 지키는 역장 채창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작가 조현재의 숨겨진 사연까지, 각각의 에피소드는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깜짝 놀랄 반전을 그리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소중한 순간과 추억들, 그리움과 같은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하지만 언뜻 따스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 같은 이들의 사연 중에는 가슴 아픈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10여 년 전 일어난 대형 열차 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 역시 가슴 아픈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이곳을 떠나버렸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이 작은 기차역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중 역장 채창도와 진민범, 조서영은 바로 그런 아픈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거나 떠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또한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인물들 또한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들이 남겨진 이곳 간이역을 서성인다. 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지만, 또 한편으론 누군가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간이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은유라고도 볼 수 있다.

THEATER MAN

모두를 보듬는 바흐의 선율

한편 음악극이라는 장르에 걸맞게, 극중 6개의 에피소드에는 각각의 테마곡들이 흐른다. 음악감독이 직접 무대 한쪽에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음악들은 모두 잘 알려진 바흐의 선율들이다. 각각의 에피소드와 음악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극중 인물의 정서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바흐의 음악은 각 에피소드에 서정성을 더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이들을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극중 출연진 모두가 악기를 들고 나와 합주를 하는데, 전문 연주가들의 세련된 음색은 아니지만 다 같이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의 서투르면서도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낸다.

연극 <씨어터맨>은 극단 벼랑끝날다의 대표이자 작/연출가인 이용주가 단원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개성을 염두에 두면서 써내려간 작품이다. 덕분에 극중 주인공들의 이름은 모두 실제 단원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고, 각각의 캐릭터 역시 배우의 매력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극중 화자인 '씨어터맨'은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로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한다.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극단의 배우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연출가 역시 또 한 명의 '씨어터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review
연극만원 <씨어터맨>

8월 13일(토)·14일(일)
오후 2시·6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031-783-8000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사진 제공 **극단 벼랑끝날다**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6월 18일(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립오페라단의 새 프로덕션 라인업을 보며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엔 오페라 역사에서 흔치 않은 성서 오페라가 두 편(<나부코>와 <삼손과 델릴라>)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고, 올해는 베르디 오페라 중 국내 초연작에 비중을 두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탈리아 오페라 최고 대가의 작품으로는 썩 뛰어난 편에 속하지 못한 두 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페라 실연 무대에 목말랐을 관객에게 더 훌륭한 명작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염려가 컸다. 베르디가 애초부터 19세기 중반 프랑스 오페라의 주류였던 '그랑도페라'풍으로 작곡한 보기 드문 케이스여서 전성기 작품임에도 극과 음악의 부조화가 있는데다 너무 길어 지루한 면도 있다. 줄거리는 비록 중세 시칠리아 역사에서 취재하기는 했지만 주요 등장인물은 가상의 캐릭터들이며,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끔찍한 복수극이다. 심지어 당대 프랑스 최고의 인기 대본 작가 외젠 스크리브의 작품이라지만 사실은 가에타노 도니체티를 위해 썼던 <알바 공작>1839의 시대와 장소를 바꾸었을 뿐 재탕한 내용이다.

13세기 시칠리아라는 특정의 시공간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연출은 각 막마다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장치들을 인상적으로 펼쳐 보였다

기대 이상의 완성도로 탄생한 무대

하지만 이번 공연의 결과는 그간의 우려가 미안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13세기 시칠리아 민중과 프랑스 지배층 사이의 갈등을 인류 보편 항쟁의 역사로 풀어내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시켰고, 요즘 지구촌 이슈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과도 연결되는 면이 있었다. 또한 폭력적인 복수극은 비록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뿐 궁극의 목표는 평화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심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우선 파비오 체레사가 연출하고 티치아노 산티(무대), 프란체스코 본디(의상), 마선영(조명)이 디자이너로 참여한 프로덕션에 대해 살펴보자. 파비오 체레사는 2016년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한 비발디의 <올란도 핀토 파초>의 연출을 맡아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무대로

채색해 호평을 받았던 젊은 이탈리아 연출가다.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이었지만 이번에도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특기를 잘 살린 듯하다. 체레사는 비록 역사극이지만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부각시키기 위해 전체적 상황을 상당히 추상화하면서도 너무 난해하게 흘러가지 않는 연출을 시도했다.

아름답고 상징적인 연출, 충실한 연주

막이 열리면 오렌지색과 푸른색 열매들이 달린 하얀 나무가 무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오렌지색은 시칠리아를 상징한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유명한 합창곡도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아닌가. 옅은 푸른색은 프랑스를 상징한다. 삼색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푸른색은 그중 '자유'를 상징하지만 그것까지 연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극은 프랑스의 통치를 받는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하므로 푸른색은 지배자의 색이요, 오렌지색은 피지배자의 색이다. 이는 의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두 진영을 구분한다. 참고로 이 오페라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같은 대본 작가의 <알바 공작>은 16세기 스페인 지배하의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상징도 오렌지색 아닌가. 우연의 일치인지, 연출자의 의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결과다.

13세기 시칠리아라는 특정의 시공간을 인류 역사에 반복된 보편적 상황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무대도 상징적으로 꾸몄다. 섬을 상징하는 듯 무대 중앙 대부분을 살짝 솟아오른 원

1 빼어난 가창과 연기를 보여준 서선영(엘레나)과 여전히 고급스러운 음색이 돋보였던 강요셉(아리고)
2 베르디 바리톤의 전형을 탁월히 소화한 양준모(몽포르테). 권위적인 총독의 악마적 카리스마와 아들 아리고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미를 능란한 가창과 힘 있는 자태로 소화했다

I VESPRI SICILIANI

형 공간이 차지한 가운데 1막은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정원, 2막은 파도 한가운데의 돛단배, 3막은 시칠리아 지도를 연상시키는 섬, 4막은 행성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5막은 이상향을 연상시키는 낙원으로 설정했다. 오렌지색과 푸른색은 채도를 낮춰 또 하나의 지배적 색채인 흰색과 조화를 이루는데,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막마다 두드러진 변화를 주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너무 긴 이 오페라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 프랑스어가 아닌 이탈리아어 대본을 선택한 이상 베르디의 가장 긴 발레 음악인 '사계'를 생략한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행성들이 떠 있는 4막의 우주 공간은 상징성이 지나쳐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주요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회고에 해당하는 복면 인물이 자주 등장한 점도 극적 몰입에 오히려 산만하게 작용했다. 연출자는 저항을 초래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동시에 억압받는 자가 억압하는 자로, 억압하는 자가 억압받는 자로 바뀌는 역할의 전복에도 비중을 두겠다고 했는데, 애국지사 프로치다가 독립운동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물임이 드러난다든지, 강압적 통치자인 몽포르테가 양국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다든지 하는 메시지는 관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피날레였다. 화합의 순간에 펼쳐지는 피의 복수극이 이 오페라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고, 그 폭력성을 실감하게 만들면서 과연 목적을 위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으면 했는데, 마지막 5막을 낙원처럼 연출한 탓에 끔찍한 만행의 순간조차 너무 순화시켜버린 느낌이었다.

베르디 특유의 매력이 빛난 주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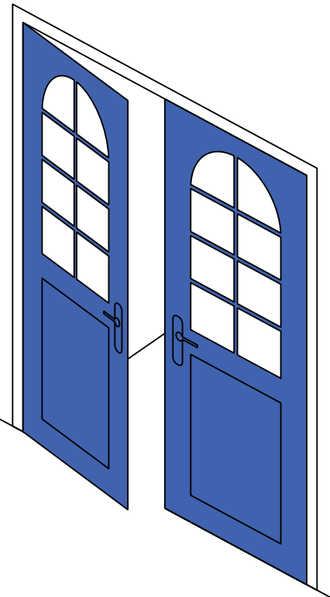
필자가 관람한 6월 18일 공연의 성악진은 소프라노 서선영(엘레나), 테너 강요셉(아리고), 바리톤 양준모(몽포르테), 최웅조(프로치다)였고 세바스티안 랑 레싱이 지휘하는 코리아쿱오케스트라, 노이오페라코러스가 함께했다. 2주 앞선 예술의전당 공연과 비교하면 지휘자가 홍석원에서 레싱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띄었다. 홍석원이 극의 어두운 분위기와 비극적 결말에 어울리는 장중한 음악으로 몰고 갔다면 상대적으로 레싱은 순간순간의 음악적 특징에 치중하는 느낌이었다. 예컨대 마지막 막에서 엘레나의 화려한 아리아 '고맙습니다, 친구들'은 레싱 쪽이 한층 빠른 템포였다. 홍석원이 곧 벌어질 비극적 살상을 염두에 두었다면 레싱은 결혼식의 축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캐릭터에 있어서 이 오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총독인 몽포르테다. 억압적 통치자였지만 잃었던 아들을 되찾으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는 베르디 바리톤의 전형적 모습에 가깝다. 양준모는 권위적인 총독의 악마적 카리스마와 아들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미를 능란한 가창과 치밀한 목소리 연기, 힘 있는 자태로 소화했다. 날이 갈수록 세계적 디바의 면모를 뽐내는 서선영은 시종일관 안정감 있었고 기량 면에서 탄성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풍부한 성량, 무대 끝까지 도달하는 투명한 음색, 포르테와 피아니시모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연극적 표현력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강요셉은 1막 몽포르테와의 이중창에서 전성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안겨주었지만 아직 성대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다. 정통 리리코다운 노래를 들려주다가도 예상 못 한 순간에 소리가 갈라지곤 했고, 4막에 이르자 성대에 확연히 피로가 왔다는 신호도 보였다. 본인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계속 조심스럽게 불러야 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역시 한없이 고급스러운 음색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더없이 반가웠다.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코리아쿱오케스트라는 정교한 합주력과 풍성한 사운드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했다. 지휘자의 요구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점은 단원 전체가 최선을 다한다는 증거이자 이 악단의 좋은 문화로 정착된 느낌이다. 유명한 서곡부터 피날레의 폭발적인 음향까지 잘 조련된 악단의 소리였다. 그랑 도페라의 특징답게 특별히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노이오페라코러스도 합창 비중이 큰 작품에서 정확한 노래는 물론, 무대를 복잡하게 오가는 연기에도 충실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글 **유형종**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최재우**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2022
성남아트센터 2학기
성인 아카데미

감상인문

음악감상 클래식 해설, 오페라 감상, 예술융합
미술인문 미술사, 작품감상, 미술관 투어, 미술시장

예술실기

음악실기 바이올린, 첼로, 하프, 피아노, 클래식 기타
전통예술 한국무용, 사군자 & 문인화, 현대민화
미술실기 서양화, 현대미술, 인체크로키, 오일파스텔, 실크스크린

접수기간 **2022. 7. 27(수) 오전 10시~** (온라인 우선접수)
2022. 8. 1(월) 오전 10시~ (방문접수)
개 강 2022. 8. 9(화) (강좌별, 요일별 개강)
수 강 료 강좌별 상이(재료비 별도)
문 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아카데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 · CURATOR

42 **일상에서의 디자인**
불을 담다
시간과 공간을 은유하는 빛

46 **트렌드**
미디어로 증강된 도시의 문화적 표면
도시의 새로운 얼굴, 미디어 파사드

50 **기술과 예술**
안 되는 건 안 돼, 잘하는 거 하자
인공지능 시대와 인간

54 **영화 속 클래식**
완벽을 향하여
<더 배트맨>과 '아베 마리아'

56 **미술 길라잡이**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할까
컬렉터의 길: 취향을 찾아서

58 **트렌드**
아트 비즈니스에 진심입니다
유통업계의 미술 시장 진출 본격화

60 **트렌드**
우리가 기다린 음악가들
한국인 연주자들, 상반기 국제 콩쿠르 석권

64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R의 법칙으로 이룬 도시 변화
싱가포르 클락키의 숨겨진 위트

불을 담다

시간과 공간을 은유하는 빛

쇠를 곱게 꾸며 만든 한 자 남짓한 크기로
두드리고 다듬은 솜씨는 하나하나 신비롭구나.
나그네 스쳐가듯 빠르게 타버리는 불꽃
너와 더불어 긴 밤 지새운 이가 누구던고.
- 촛대의 반사판에 새겨져 있는 시

나무로 조각한 봉황 위에
쇠 등잔을 올린 목제봉황모양등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난 집에 부채질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부채 바람이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냥불은 입으로 훅 불면 꺼져버린다. 순간적인 바람이 불을 꺼뜨리는 것이다. 바람이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재우기도 한다. 불은 주변을 초토화시키지만 일단 꺼지고 나면 온데간데없다.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버리니 마술이 따로 없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이러한 불의 성질을 빗댄 것이 아닐까?

이 마술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벌겋고 뜨거운 것이 떨어져 주변을 밝히며 숲의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얼마 후 이 뜨거운 존재가 어느 정도 사그라지자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숲 근처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거주하던 동굴보다 환하고 따뜻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도 솔솔 풍겨왔는데, 미처 도망치지 못해 불길에 통구이가 된 멧돼지나 노루였을 것이다. “우와~ 그동안 질겨서 씹기 힘들고 역한 냄새도 났는데, 불에 탄(익힌) 고기는 구수한 냄새에 부드럽고 맛도 좋아!” 꺼지지 않은 불은 온기로 몸을 덥혀주었고 어두운 밤에는 사위도 밝혀주었다.

화들짝 나타나서 가뭇없이 사라지는 불! 탈 동안에는 두 가지 강력한 특성을 발휘한다. 열과 빛이다. 열은 음식의 가공과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생존을 도왔고, 빛은 어둠을 물리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훔쳐 인간에게 준 것이다. 마술과도 같아 신이나 가질 법한 것인데 이것을 인간도 가지게 되었다. 이 귀중한 불을 잘 간수해야 했다. 그런데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보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필요할 때마다 불을 만들어낼 궁리를 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인간은 스스로 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질박한 생김새의 호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불의 그릇

불을 어찌어찌 만들기는 했지만 문제는 계속 잡아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은 주었지만 그릇까지 챙겨주지는 않았다. 담아둘 방법이 없다면 훌쩍 사라지는 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결국 등燈이 고안됐다. 50여 년 전, 어렸을 때 처음 보았던 호롱불. 호롱은 불을 밝히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생김새는 질박하다. 하얗고 둥그스름한 몸체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동그란 뚜껑이 심지꽂이 역할을 한다. 윗부분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바닥까지 늘어져 있는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며 계속 불을 밝힌다. 외출할 때에는 호롱을 상자에 담아 가지고 다닌다. 이 불 상자를 초롱이라 하는데, 보통 나무틀에 사면이 유리창으로 된 투박한 형태지만 용도와 목적에 따라 정성들여 꾸미기도 했다. 꽤 공들여 만든 등잔도 있다. 나무로 만든 봉황의 등에 홈을 파고 쇠로 만든 등잔을 올려놓은 목제봉황모양등잔[木製鳳凰形燈盞]이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형태와 색채, 매달 수 있는 고리 등 그 매무새로 보아 사찰의 법당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음직하다. 공양供養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일 수도 있다.

호롱불이나 등잔, 촛불이 원시적인 불이었다면, 과학적인 불은 근대기에 등장한 전깃불이다. 1879년, 기존의 석유등이나 가스등에서 진일보한 에디슨Thomas Edison의 백열등이 발명되었다. 수십 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탄소 필라멘트 전등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현대 조명의 시대가 열렸다. 반세기 후인 1938년, 인맨George Inman이 에디슨의 백열등보다 효율이 좋고 수명도 긴 형광등을 완성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서구식 조명은 등유를 사용하는 남포lamp등이고, 처음 들어온 전기 조명은 1887년 에디슨사가 경복궁 내 건천궁에 설치한 백열등이다. 전등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백열전구다.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원형이 된다. 달걀인 듯, 물새알인 듯 미끈하게 흘러내리는 곡선미가 관능적이다. 두 번 다시 출현

하기 힘든 전등의 원형archetype이자 전등 디자인의 고전이라 하겠다. 투명한 유리 너머의 반짝이는 필라멘트 불꽃이 보석처럼 영롱하다. 백열전구가 얼마나 우아하고 매혹적인지는 하얀 가래떡처럼 길쭉한 형광등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밝기는 하지만 본새는 나지 않는다. 백열전구의 실루엣만큼 감성을 자극하는 뷰 포인트도 없다. 그런 시각 경험의 누적 때문인지 전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은 여전히 백열전구의 형상을 따른다.

차가운 불

핀란드는 수많은 섬과 호수, 숲으로 이루어진 추운 나라다. 낮이 계속되는 백야白夜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겨울이 되면 오후 3~4시만 되어도 어둑어둑해진다. 일찌감치 밤이 시작되니 흑주黑晝라고 할 만하다. 디자인은 주변 환경을 다듬고 개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백야 기간의 숙면을 위해 창을 가려야 했으며 춥고 긴 밤을 견딜 난방과 조명 기구도 필요했다. 핀란드가 패브릭fabric과 목재 가구, 조명 디자인이 발달한 배경이다.

어느 상점에서 선반에 놓인 얼음덩이와 맞닥뜨렸다. '불을 품은 얼음'이었다. 전구와 얼음에 대한 오마주! 1996년, 하리 코스키넨Harri Koskinen이 이 둘을 결합한 블록램프Block Lamp를 디자인했다. 차가운 얼음에 싸인 전구가 먼저 얼까? 전구의 뜨거운 열기에 얼음이 먼저 녹을까? 얼음과 불의 격렬한 맞섬이다. 추운 나라에 와 있음을 실감한다. 10여 년 전에 15만 원 남짓했던 가격이었는데, 하나 사 올까 하다가 짐이 될 것 같아 포기했다.

하리 코스키넨은 이 블록램프만이 아니라 여타 디자인 과업을 수행한 경력으로 많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적절한 재료, 간결한 형태, 적정한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북유럽 디자인의 전통을 잘 구현하고 있다. 핀란드인이 가장 중시하는 덕목이 정직과 단순함인데, 그 역시 정직을 앞세운다. "작업의 목적은 좋은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역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고 했다. 레스토랑에서부터 호텔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차가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이 전등을 뉴욕현대미술관MoMA은 컬렉션의 하나로 소장하고 있다.

불멍!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흔히 쓰였던 촛대는 초를 꽂거나 얹을 때 쓰는 도구로 촉가燭架나 촉대燭臺라고 한다. 촛대는 등 자체는 아니지만 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초가 비싸고 고급품이어서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듯이 촛대 또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은銀과 동銅으로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사슴, 소나무 등의 십장생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촛대[鐵製銀洞入絲詩名燭臺]가 있다. 반사판에는 입사(入絲, 바탕에 홈을 파고 다른 재료를 박아 넣는 것) 기법으로 시가 새겨져 있다. 반사판이란 초

1 하리 코스키넨, Block Lamp, 1996
2,3 촛대 반사판에 시가 새겨져 있는 조선시대의 철제은동입사촛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3

꽃이 옆에 붙은 얇은 쇠판으로 화선火扇이라고 한다. 이리저리 돌려 촛불의 밝기를 조절하며, 바람에 불꽃이 일렁거리거나 꺼지지 않도록 한다. 빛을 모아 증폭시켜주는 갓이 함께 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 반사판은 나비의 모습을 닮았는데, 불꽃이 일렁이면 건너편 벽면에 너울대는 나비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통 공예품은 장식이 과할 뿐만 아니라 반사판도 나비의 형상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운치가 떨어진다. 입사로 되어 있는 글귀를 읽어보자.

粧來金鐵尺餘身(장래금철척여신)
冶鑄奇功箇箇神(야주기공개개신)
自惜光陰如過客(자석광음여과객)
憑渠欲問夜遊人(빙거욕문야유인)

전반 두 구는 촛대의 제작 솜씨를 칭송하는 것이고 후반 두 구는 이를 보고 느끼는 감흥이다. 3구의 自惜光陰如過客(나그네 스쳐가듯 빠르게 타버리는 불꽃)이라는 내용은 '세상은 만물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라고 한 이백의 시를 연상시킨다. 세월도, 불꽃도 나그네다.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시간의 흐름이 덧없으니 공간 또한 덧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렁이며 타들어가는 불꽃을 보고 있으면 시공이 무상하다. 불멍!

빛을 디자인하다

전등 디자인은 전등의 외관을 꾸미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그릇은 껍데기일 뿐, 궁극적으로는 '어떤 빛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빛을 담는 그릇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빛은 공기나 물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만져볼 수 없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사물의 형상도, 공간도 인지할 수 없기에 희미하게라도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빛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시간은 공간 속에서 흐르고, 공간은 빛에 의해 지각된다. 빛은 시간과도 연계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공간과 시간의 변주에 의해 이 세계가 구축된다는 근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을 은유하는 빛, 불을 담은 빛의 디자인은 영원하리라.

글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

미디어로 증강된 도시의 문화적 표면

도시의 새로운 얼굴, 미디어 파사드

오늘의 도시가 거대한 볼거리의 집합체라는 것은 새삼스럽다. 독특한 건축물과 빛을 내뿜는 사이니지, 매혹을 내뿜는 쇼윈도와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사람들의 패션도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동 중 대부분 스마트폰에 눈길을 고정하거나 이어폰 소리에 정신을 기울인 채 도시 사이에서 목적하는 좌표 간 점프를 하고 있다. 이동 중 과정은 스스로가 여유가 있거나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무맥락의 스킵skip 버튼을 누른 상황과 같다. 말 그대로 목적지 간의 점프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차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도시의 움직임이 있다. 빛으로 구성된 이 이미지는 건물의 표면을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화시킨다. 역동하는 건물의 표면, 새로운 도시의 얼굴.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현상이다.

건축물 표면을 차지하는 평면 또는 입체의 스크린. 이러한 건축적 규모의 멀티미디어 풍경,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 안에서 어느새 익숙한 구경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파사드Façade'는 하나의 건축물에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 면을 가리킨다. 이 파사드에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하거나 스크린을 설치해 영상을 출력하는 가운데 음향을 추가하는 등, 여러 기술 미디어를 통해 고정된 건축물을 다양한 유동적인 모습으로 재의미화하는 방법 및 결과물이 바로 미디어 파사드이다. 이 기법이 근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 곳곳에 새로운 모습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물 표면의 평면뿐 아니라 여러 입체적 부분을 포함한 고정된 구조물을 유동시키고, 그곳에 새로운 맥락을 더할 수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시각적 아름다움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각을 자극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물로서 오늘날 여러 실내외 공간에서 활용된다.

인상적인 도시 풍경, 미디어 파사드

대표적 예시로 광화문 광장 주변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광화문 맞은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ㄱ'자로 둘러 설치된 LED 스크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주변은 한창 광장 조성 공사로 혼잡하지만, 유독 근처를 이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빛의 표면이다. 'ㄱ'자로 꺾인 화면에서는 마치 그 내부가 유동하듯 실감나는 입체 구조와 운동이 펼쳐지고, 이런 영상 풍경을 통해 가로 90m, 세로 10m의 거대한 스크린 규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선보인 '광화시대' 프로젝트 중 '광화벽화'의 모습이다. '빛으로 만나는 실감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이곳에서는 빛과 색채에 대한 '광화오브제Gwanghwa Objet', 역사와 전통 문화를 모티프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광화 연대기',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꽃씨에 참가자 이름과 소망을 적어 평화의 꽃을 개화시켜 날리는 상호작용 참여 콘텐츠 '단델리온 프로젝트',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을 감상하는 힐링 콘텐츠 '인절미 3인방', 인공 자연의 쾌적함을 공유하는 '웨이브', 날씨 데이터와 연동한 데이터 시각화 작업의 일종인 '공중정원' 등 다양하게 펼쳐지는 환영illusion적 영상 경험이 제공된다.

사실 이 거대한 환영공간을 우리는 이미 2020년 삼성동 코엑스에서 마주했다. SM Town 코엑스 아티움 외벽을 감싼 가로 81m, 높이 20m 규모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건물 안쪽이 모두 물로 채워지고 그 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파도를 생성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위의 <광화시대> 영상 콘텐츠 중 <웨이브>가 바로 이 장면의 파생 콘텐츠이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토대로 콘텐츠 기획과 창작을 진행하는 회사 디스트릭트D'strict에서 제작한 <웨이브>는 파도가 평면이 아닌 입체

로 다가오는 착시감과 물의 역동감이 조밀한 해상도와 풍부한 색감으로 펼쳐지며 인상적인 도시 풍경으로 각인되었다. 이 입체감은 건물 외벽의 두 면을 곡면으로 연결한 'ㄱ' 자 구조 스크린과 1,620m² 규모의 거대한 면적, 그리고 이 입체 구조에 잘 맞춰진 콘텐츠를 통해 실현되었다. 특히 아나모픽Anamorphic이라고 불리는 꺾인 디스플레이 구조를 통해 스크린의 튀어나온 양(+)의 공간이 아닌 가상적 내부, 즉 음(-)의 공간을 착시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통해 '건물 안쪽을 가득 채운 파도'라는 입체 공간과 사건을 인상 깊게 실현했다.

빛, 기술, 미디어의 만남

이 외에도 강남역 일대 여러 건물에 설치된 다양한 LED 스크린 다수와 가로등처럼 도로 측면에 연속 설치된 기둥 형태의 미디어 칼럼을 조합하여 작가의 작품을 기획, 송출 중인 202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프로젝트 '아트스케이프X공공' 역시 2022년 7월 현재 진행 중이다. 김보희 작가의 자연에 대한 회화 25점이 영상으로 재구성되어 도시 표면의 다양한 지점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주변 환경을 연계한 집합체로서의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표현과 병행 사용된다. 건물 외부의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하는 시도는 기존 LED 전광판을 통한 영상과 연관하여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기존의 옥외 광고물, 즉 광고판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콘텐츠를 칭하는 것으로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순한 문자나 기호 출력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한다. 기존 광고판으로서 사이니지 규격에서 확장된 콘텐츠가 공유되며 콘텐츠와 구조의 연결과 조화가 강조되고, 특성화·전문화·대규모화 현상으로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스타일과 연

1 202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프로젝트 <아트스케이프×공공>, 김보희, 2022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장식한 '광화벽화' 중 '인절미 3인방'

결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LED 방식 스크린과는 다른 결로 활용되는 것이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이다. 프로젝터를 사용해 특정 건물 또는 입체 표면에 그 구조와 장소의 특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영상 투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디어 파사드의 한 방식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와 공간의 연결 활용 흐름은 미술의 원시적이고 마술적인 전통이자 기법인 트롱프뢰유trompe-l'oeil와 닿아 있다. 트롱프뢰유는 실물로 착각할 만큼 정밀하고 생생한 묘사로 시각적 환영을 불러일으키며 자극과 충격을 전달하는 기법이다. 단어 자체에 '눈속임'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이 기법은 고대 그리스 화가 제욱시스Zeuxis와 파라시오스Parrhasios의 일화로부터 로마의 실내 정원, 이어 르네상스로 이어져 원근법이라는 시각 법칙으로서 서구 시각 문화의 공간성을 대표하며 자리한다. 바로크와 로코코 시기에는 실내에서 공간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건축적 장식과 함께 어우러져 입체적인 환영을 유도하며 실내의 공간 경험을 풍성하게 했다. 1930년대에는 마그리트의 회화를 비롯하여 초현실주의에서 시각적 모순을 극대화하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고, 21세기 초반에는 디지털카메라의 유행과 트릭아트 뮤지엄이 연결되어 이러한 환영 경험과 소비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렇듯 기술적 이미지가 더해진 새로운 이미지 환영은 물리적 현실과 함께하며 촉각적이기까지 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

빛과 관련 기술, 그리고 미디어가 합류하여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눈속임의 수단에서 이어진 즐거운 충격을 동반한 이 기법은 오늘날 건물과 건물이 모여 형성한 도시 경관을 바꾸어내고 있다.

접촉과 연결을 통한 공존

공간에 대한 인식과 표현 기법에 유희와 촉지각적 경험이 더해진 이 예술적 시도는 조명 및 투사 기기의 발전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를 실현하는 구조 중 LED 스크린 타입의 경우 빛의 색상, 색 온도, 밝기 등 다양한 물리적 요소를 제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력 소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새로운 조명 기기 LEDLight Emitting Diode가 보편화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대형 스크린에는 방수성 등 옥외 환경에 부합하는 조건이 갖춰졌고, 이미지와 영상 출력을 위한 콘트롤러 기술의 발전이 합류하며 사용 장소와 방법이 확장되었다. 또한 장소에 제약이 컸던 영상 투영 장치 프로젝터 역시 외부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밝기와 투사 거리 등이 발달하면서, 도시 환경 기반의 창작과 표현이 본격적으로 발전·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젝션 매핑 방식은 고정 설치물인 LED 스크린에 비해 단기간, 유동적 상황에 활용되며 미디어 파사드의 또 다른 축을 차지했다. 이들의 연계는 2003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외벽을 수놓은 빛의 비늘, 2009년 서울대 문화관의 프로젝션 매핑에서 시작해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의 거대한 디지털 캔버스, 국회의사당 로봇 태권브이의 출동을 거쳐 DDP의 서울 해몽Seoul Haemong과 광화시대, 아트스케이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 도시 곳곳을 다양한 이미지 공간으로서 수놓았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공통적 지점은 우선 물질과 이미지와의 매끄러운 접촉과 이를 통해 증강augmented되는 경험이다. 이 쾌적한 인터페이스는 콘텐츠의 내용과 함께하며 물질에 기반한 가상에의 끊김 없는 연결성seamless을 제공하고 그 너머 환영illusion 세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험의 핵심은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 물질과 이미지의 공존과 공진이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어느 한 세계의 부각이나 강조가 아닌 '증강'이다. 물리적 대상과 장소의 의미와 맥락이 한 곳에서 중첩되어 형식과 내용, 구조와 의미를 공유하며 표현의 진폭을 넓힌다. 어느 한쪽 세계의 경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경험의 질과 강도는 더는 세계의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의 세상은 바로 그런 연결된 세계이다. 우리 육체가 발 딛고 있고 오감이 감각하는 전통적인 물리 세계가 제공된 것처럼, 기술 매체를 매개로 정신이 접속하고 시뮬레이션적으로 감각하는 가상 세계 역시 또 다른 현실이다. 이 두 세계는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맞물려 연결되고 중첩된 복합계로서 존재하며, 두 세계 간의 위계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과거의 창window으로서의 묘사를 통해 접점을 인식하고, 관계 맺음을 넘어 이제 접촉과 조작이 가능한 증강 표면으로서 이들을 감각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공간에 대한 인식과 표현 기법에 유희와 촉지각적 경험이 함께한 일종의 '환영 공간'을 자아내는 문화예술적 시도일 것이다. 이들은 조명과 이미지 투영 기기라는 광학 표현 기기의 발전에 발맞춰 해당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시작되어 유효한 방식이자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도시의 표면 곳곳에서 도시 풍경을 보다 다채롭게 변모시키고, 새롭게 중첩되며 확장된 공간에 대한 경험의 장을 제시한다. 이들이 자아내는 환영적 경험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환기시키며 당대 세계의 변화와 확장을 알리고 있다. 현재의 특성과 이면, 기술적 현실의 다양한 결layer과 의미를 알리는 '미디어 아트'의 단면이 도심 한복판에 정착한 지금, 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어떤 세계,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담아 상상해본다.

글 **허대찬** <앨리스온> 편집장
기술과 미디어로 조성된 오늘날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인간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디어 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의 편집장, 게임연구콜렉티브 더플레이 선임연구원, 제주창의예술교육랩 과학랩장으로 활동하며 미디어 아트와 디자인, 기술 문화에 관련된 전시와 행사, 교육과 그에 대한 연계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 중이다.

© shutterstock

안 되는 건 안 돼, 잘하는 거 하자

인공지능 시대와 인간

인공지능의 시대, 특별한 내가 더욱 분명해진다.
어차피 잘하는 거 누리고 살 시간도 부족하기에
오늘도 끝없는 열정과 패기, 샘솟는다.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네 번째 모습은 바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다.

사람 상비니: 라테(내가 한때)는 말이야….
AI 상비니: 도긴개긴(그때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시절, 암기를 요구하는 수업이 참 많았다. 암기보단 이해를 선호했지만 시험 문제는 풀어야지. 해서 시험 전날이면 벼락치기, 필요할 때 즉각 호출 가능한 '기억 신공'을 발휘했다. 수학 과목은 암기보다는 응용이 중요했고, 개인적으로 자신 있었다. 이를테면 머릿속에서 주어진 숫자를 막 비비며 싹 추출하는 '연산 신공'을 발휘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기억력과 연산력이 감퇴했다. 마치 왕년의 근육질과 유연성을 믿고 섣불리 마음만 앞서다가는 몸이 망가지듯이 이제는 쉬엄쉬엄 살아야 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안 좋다. 아, 두뇌의 리즈 시절(전성기), 돌려줘! 특별히 부탁할게.

딩동, 딩동.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여니 AI 상비니가 그저 환하게 웃는다. 내 최고점으로 세팅되었으니 기억이건 연산이건 걱정은 이제 그만. 옆에 놓고 활용하니 한동안 기분 참 좋았다. 마치 전화번호는 내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기억하면 되듯이 내 인생, 더욱 편해졌다. 하늘을 나는 기분,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 AI 상비니가 자꾸 잘난 체한다. 아니, 기능 좀 좋다고 감히 날 무시해? 나도 한때는 너처럼 머리 팡팡 돌았었거든? 감독도 왕년엔 선수였다고! 그러고 보니 사람 상비니는 '선존재', AI 상비니는 '후기능', 뭐가 더 잘났지? 각설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널 낳았다고…. 그런데 그의 눈빛이 범상치 않다.

다음 날, AI 상비니가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러더니 왕년의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억력과 연산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 그분, 이름도 바꾸어야 할 판이다. 만약에 다른 세팅도 이리저리 바꿔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닌가? 이런, '내가 널 낳았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그냥 다를 뿐. 솔직히 비교가 안 된다. 그저 사람의 기득권, 제발 잃지 말기를! 즉, 아무리 못나도 내 말 계속 들어줄 거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컴퓨터의 메모리와 CPU는 저장과 계산에 특화되어 있다. 게다가 기계 장치라 쉽게 지치지도 않는다. 한편 사람의 기억은 종종 왜곡되거나 사라지고, 연산은 종종 서툴거나 분위기를 탄다. 그뿐이랴, 생명 장치라서 휴식을 취하고 잠도 자야 한다. 그러고 보면 AI, 정말 못 하는 게 없다.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를테면 공학! 그런데 만약에 문화마저 넘본다면? 그건 사람 아니면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를테면 예체능 문화를 선도하는 AI라니 낯설다.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같기도….

그런데 이와 관련한 예는 벌써부터 적지 않다. 우선, 게임을 보면 1996년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는 슈퍼컴퓨터 딥 블루와의 체스 대결에서 보기 좋게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1997년에는 패배의 쓴 잔을 맛봤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는 인공지능 배후에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혹시 스승님?

2011년, 미국 ABC 방송의 인기 퀴즈쇼 제퍼디 Jeopardy에 슈퍼컴퓨터 왓슨이 출연, 사람의 구어체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답했다. 그리고 당시의 퀴즈쇼 최강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마치 프로와 아마추어 간의 터무니없는 대진표와도 같았다.

2016년, 바둑 최강자 이세돌은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와 다섯 번의 대국을 두었다. 애초에는 이세돌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은 기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도 변칙적으로 한 번 이겼다. 초창기였기에 망정이지….

다음, 음악을 보면 2010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아야무스, 그리고 2015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쿨리타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곡을 완성했다. 연주자들이 그 곡을 연주하자 청중은 큰 감동을 받았다. 기계가 작곡했다는 영문도 모른 채.

다음, 미술을 보면 2015년, 구글에서 개발한 딥드림DeepDream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사진 원본을 해석해 초현실주의적인 풍경을 표현했다. 즉, 사진을 업로드하면 별의별 연상 작용으로 색다른 그림이 탄생했다. 혹시 AI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마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가 그린 듯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의 원작을 모사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식을 스스로 해석해서 표현했다. 혹시 렘브란트의 환생?

2019년, 영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스타일갠2StyleGAN2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얼굴을 진짜같이 생성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일환으로서 특정 사이트(https://thispersondoesnotexist.com)에 접속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어딘가는 분명히 존재할 법한 도플갱어Doppelgänger?

완전 진국인 사람됨의 맛

안 되겠다. 사람은 잘났다. 분명한 사실은, 결국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AI는 그토록 잘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 그러니 사람 변호를 해보자. 아니, 우선 그 특성을 살펴보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들 좀 모이고 시작할게요. (웅성웅성) 자, 이제 가죠.

첫째, "사람은 자아를 믿고, 따르고 싶어 한다." 에곤 쉴레의 <자화상>1912을 보면, 이는 기능과 작동보다는 자유와 의지의 문제다. 이를테면 능력 부족하고 비도덕적이라도 어마 무시한 자기애,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둘째, "사람의 인식은 불완전하다." 르네 마그리트의 <The Human Condition>1933을 보면, 이는 정보와 용량보다는 선별과 가공의 문제다. 이를테면 왜곡, 희석, 해석,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기억,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셋째,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믿고, 울고 웃는다." 에셔M. C. Escher의 <Still Life and Street>1937를 보면, 이는 실제와 사실보다는 가상과 창작의 문제다. 이를테면 누가 뭐래도 다들 동의하고 따르는 이야기,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넷째, "사람은 맥락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만든다." 한스 아르프Jean Arp의 <Collage with Squares Arranged According to the Laws of Chance>1916-17를 보면, 이는 재현과 기법보다는 표현과 철학의 문제다. 이를테면 의미심장한 개념을 곱씹는 맥락,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다섯째, "사람 기준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에셔의 <Verbum>1942을 보면, 이는 통계와 정답보다는 통찰과 과정의 문제다. 이를테면 애매모호한 행간을 이해하는 기준,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여섯째, "사람은 성장을 추구한다."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의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1800을 패러디한 마그리트의 <Perspective: Madame Recamier by David>1949를 보면, 이는 원본과 원래보다는 변주와 전이의 문제다. 이를테면 세월이 흐르며 변화하는 성장,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일곱째, "사람은 스스로의 성과를 신비화한다." 마그리트의 <Chorus of the Sphinx>1964를 보면, 이는 집단과 상품보다는 개인과 작품의 문제다. 이를테면 굳이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성과, 분명 가치롭다. 사람이니까.

이는 물론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은 아직 다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항변이다. 만약에 "이제 사람도 해킹과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수용한다면 논의는 보다 복잡해진다. 그러나 아직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다. 이를테면 이상한 변칙과 황당한 똘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창의성, 지금까지는 사람의 특권처럼 보인다. 솔직히 넌 0, 1밖에 못하잖아? 그래, 사람은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 19세기 초, 사진의 출현으로 비로소 회화는 자각했다. "아, 내가 잘하는 건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구나!" 그래서 추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1세기 초,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자각했다. 아, "내가 잘하는 건 지능이 아니라 의식이구나!" 그렇다. 기계는 원래 지능과 의식을 나눈다. 그리고 아직 의식은 미약하다. 한편으로, 사람은 아직 지능과 의식을 못 나눈다. 그리고 언제나 자의식은 하늘을 뚫는다.

우리의 몸은 작다. 하지만 마음만은 크다. 그래, 생물학적으로 의식은 환상일지 모른다. 자아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주는 내 마음이고 세상은 의식이 만들어내며 삶은 자아가 키우기에. 분명한 건 사람은 '사람의 맛'을 내고 향기를 뿜는 데 탁월한 종족이란 사실! 이는 물론 AI도 마찬가지, 즉 세상 만물이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거다. 우후, '참자유' 따로 없네.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완벽을 향하여

<더 배트맨>과 '아베 마리아'

따지고 보면 배트맨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초능력이 없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력이 전부인 지극히 인간적인 영웅이다. 그런데도 이 '박쥐 인간'은 죽지도, 은퇴하지도 않고 10년마다 꼬박꼬박 스크린으로 불려 나온다.

1980~90년대 배우 마이클 키튼, 2000년대 크리스천 베일, 2010년대 벤 애플렉에 이어서 2020년대 배트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올해 개봉한 <더 배트맨>은 배트맨의 초년병 시절로 시간을 되돌린 영화다. 상영 시간만 무려 3시간.

<트와일라잇> 시리즈와 <테넷>의 영국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새로운 배트맨 역을 맡았다. 패틴슨은 "원래 배트맨은 자기의 일과 장비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완벽함에 이르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혹성 탈출>처럼 옛 시리즈를 되살리는 재가동 rebooting 전문으로 명성이 높은 맷 리브스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리브스 감독은 "배트맨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하게 다룬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거꾸로 불완전하지만 내면의 분노와 맞서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차 배트맨이 되어가는 1~2년 차의 모습을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시간순으로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2005년 <배트맨 비긴즈>의 다음에 해당한다.

암울한 누아르 영화의 탐정처럼 배트맨을 그렸다는 점이야말로 <더 배트맨>의 차별점이다. 당장 화면의 배경은 물론, 등장인물들조차 분간하기 힘들 만큼 어두운 톤을 지니고 있다. 누아르라는 검은색을 통해서 누아르라는 장르를 표현했다고 할까. 경찰의 묵인 속에 살인 사건 현장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는 배트맨의 모습도 자경단보다는 차라리 탐정에 가깝다. 영화 초반부 배트맨은 "살인, 강도, 폭행, 모두 2년간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고담은 안으로 곪아들어 구제 불능일지 모른다. 멈춰선 안 된다"고 독백한다. 그가 둘러보는 범행 현장에는 수수께끼처럼 단서가 하나씩 남겨져 있다.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범행을 통해서 폭로하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암시다. 그래서 범인의 별명 역시 '리들러(수수께끼를 내는 자)'다. 리들러는 범행이 계속될수록 단서만이 아니라 대담하게 다음 살인까지 예고하기에 이른다.

배트맨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고담시의 구조적 부패 속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역이다. 그는 시장과 경찰청장 등 권력층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직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배트맨>은 슈퍼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차라리 <양들의 침묵> <세븐> 같은 범죄물에 가깝다. 고전 할리우드 영화 팬이라면 <카사블랑카>와 <말타의 매>의 험프리 보가트, <차이나타운>의 잭 니컬슨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리브스 감독도 고전적 누아르와 갱스터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악당들로부터 고담시를 지키는 영웅이라는 배트맨 시리즈의 얼개는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주인공과 감독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스타일이 변한다는 점도 이 시리즈의 매력이다.

1980~90년대 팀 버튼 감독은 화려한 색감과 매력적 악역으로 평단과 관객의 고른 지지를 끌어내며 <배트맨>을 '컬트 영화'의 반열에 올렸다. 팀 버튼 <배트맨>의 전반은 사실상 배트맨보다는 악당 조커의 탄생 과정을 다룬다. 조커 역의 니컬슨은 이후 같은 역에 도전하는 배우들이 도달해야 하는 기준선을 제시했다.

2000년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다크 나이트> 3부작으로 할리우드 영웅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전까지 고담시와 배트맨이 변하지 않는 상수였다면, 매번 달라지는 변수는 악당들의 존재였다. 하지만 놀런 감독은 배트맨의 탄생과 수난, 부활로 전체 3부작의 구도를 바꿨다. 2010년대 잭 스나이더 감독은 초능력 영웅 군단 <저스티스 리그>를 통해서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립과 협력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전까지 '개인전'에 가까웠던 '배트맨' 시리즈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과 함께하는 '단체전'으로 변모했다.

현직 시장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번 <더 배트맨>의 첫 장면부터 흐르면서 일종의 주제가 역할을 하는 음악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다. 흔히 종교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작곡가가 월터 스콧의 서사시 「호수의 여인The Lady of the Lake」에 선율을 붙인 연작 가곡 가운데 하나다. 서사시의 등장인물인 엘렌이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의 노래로 경건한 분위기 때문에 가톨릭 미사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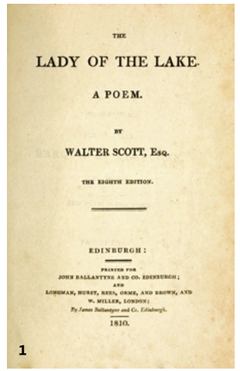
단순한 4개 음의 바탕 위에 화려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쌓아올린 배트맨의 테마가 복수심과 정의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주인공의 운명을 상징한다면, '아베 마리아'는 타락한 도시의 현실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대비시키는 극적 장치가 된다. 그렇기에 '아베 마리아'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불길한 음률로 변하고, 장례식 장면에서는 다시 경건한 곡조로 돌아온다. 후반부 구치소의 리들러(폴 데이노)가 읊조리는 선율부터 범행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 울려 퍼지는 관현악 편곡까지 영화 내내 '아베 마리아'는 다채롭게 변주된다. 이번 <더 배트맨>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음악이다. 2020년대의 배트맨 시리즈도 3부작이 예정되어 있다. 배트맨이 끊임없이 소환되는 건, 역설적으로 현실에서 악의 무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씨네 클래식
김성현 지음
생각의힘
328쪽
19,000원

<아트뷰>에 연재 중인 본 칼럼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김성현 기자의 신간. 32편의 영화를 주제로 영화의 순간, 클래식의 찰나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각 장의 말미에 더해진 '이 한 장의 음반'을 통해 최적의 감상을 위한 가이드 역시 잊지 않았다.

1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월터 스콧의 서사시 「호수의 여인」에 선율을 붙여 탄생했다
2 작곡가 슈베르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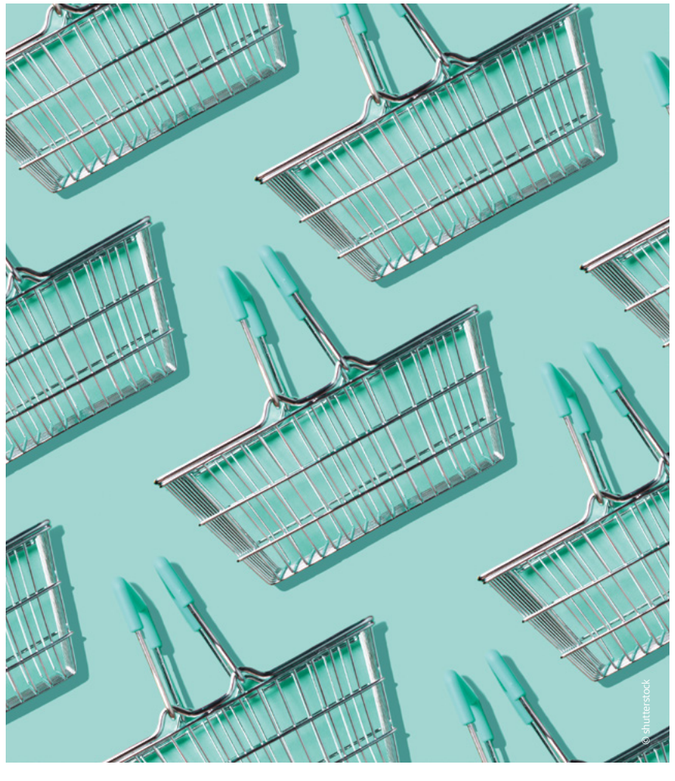
2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할까

컬렉터의 길: 취향을 찾아서

© shutterstock

갤러리, 아트 페어, 옥션 등 작품을 판매하는 곳은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작품을 소장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선택지가 너무나 광범위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인지 주변의 컬렉터에게 작품 추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분들이 소장한 작품이 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결정을 따르는 일이 과연 좋은 선택일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취향이니까요.


© shutterstock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의 취향을 파악해야 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작품은 큰 범주에서 구상 작품(무엇을 그렸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 추상 작품(도대체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것), 반구상 작품(무엇을 그렸는지 아리송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작품 형태를 파악하다 보면 색감 역시 눈에 들어올 텐데요, 색감이 강한 작품, 무채색 작품 등 다양한 색감에 대해서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작품에 다가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형태, 구성, 색감 등이 모두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것이니 시각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지를 우선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작품을 접하며 취향을 더욱 확고히 알아가야겠죠.

갤러리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개인전은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단체전은 다수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트 페어는 규모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수백 점, 많으면 수천 점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보게 됩니다. 옥션의 경우는 한 옥션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 수십, 수백 점을 보고 경매라는 경쟁 방식으로 구매합니다. 각 구매처의 특성에 따라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도 달라지지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우선 작품을 걸고 싶은 곳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 벽면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작품이 어울릴지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거실 벽이 가로 4미터, 세로 2.4미터라면 그보다 작은 작품을 선택해야겠죠. 또 종이에 가로와 세로 비율을 적고 작품이 걸릴 위치가 소파 위인지, 아니면 가구가 없는 빈 벽면인지 등도 표시해두면 작품을 보러 다닐 때 구매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매할 작품의 스타일과 크기 등에 대한 구상이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고 나면 다음으로 고려할 중요한 요소는 구입 예산입니다.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겠죠. 예산에 따라 작품의 특성이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위한 장식 목적이냐, 아니면 투자 가치를 크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구매 성향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인테리어와 투자 가치 모두를 만족시킨다면 이상적이겠지요(저도 그런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싶습니다). 직업상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자주 받는 질문 하나가 "신진 작가의 어떤 작품을 사야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인데요, 이 또한 저 역시 알고 싶습니다(웃음).

신인 작가, 또 아직 경력이 적은 작가들의 성장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가의 전시 경력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일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가의 전시 경력이 쌓이며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야 미술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되곤 하죠.

결국 미술관, 갤러리, 아트 페어, 옥션 등 미술 시장에 어떤 작가의 작품들이 나오는지 많이 보러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당히 부지런해야겠죠?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내가 직접 다니지 않아도 전시를 소개해주는 앱이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과 해시태그(#아트 #아티스트 #작가 #미술전시) 등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전시 정보를 찾아보세요. 작가와 갤러리 등의 SNS 계정도 팔로잉한다면 좋지요. 네오룩, 아트허브 같은 전시 소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전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서울옥션의 '제로 베이스' '블랙랏' 경매와 케이옥션의 '위클리 온라인'처럼 중저가 작품들과 신진 작가의 작품들이 출품되는 곳도 잘 살펴보세요. 서울옥션이 운영하는 '프린트 베이커리'는 작가들의 판화와 아트 상품 등을 주로 제작·판매하는 곳이어서 다양한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은 뒤 실제 작품을 보러 가는 것은 많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내 취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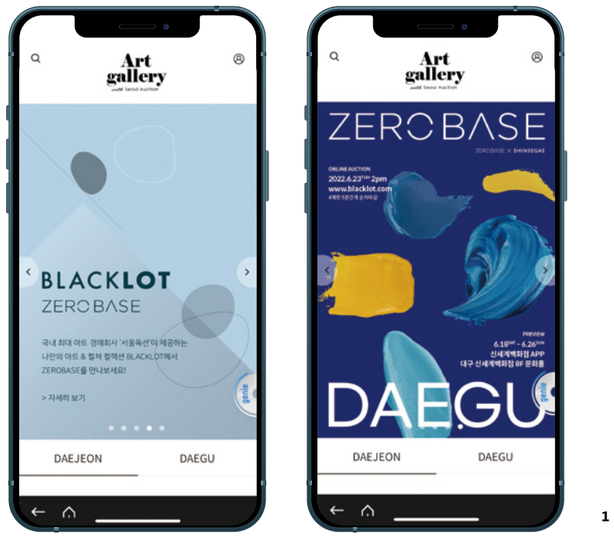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과 작가를 찾았다면 실제 작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겠죠. 작가의 작품을 프로모션하는 갤러리와 아트 페어, 또는 옥션을 통해 구입하거나, 갤러리와 일하고 있지 않은 작가의 경우 작가에게서 직접 구매합니다(이 모든 작품 거래 시에는 작품 보증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작품 구매를 통해, 내 마음에 든 작품이 전시 공간에 있을 때와 나의 공간에 있을 때의 차이를 많은 분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김종헌** 아트디렉터, Artdotz 대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뉴욕 킵스Kips 갤러리 부디렉터, 퀸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ARPNY의 디렉터2013-2015를 거쳐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일했다. 귀국 후 아트부산2016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미술 행사 진행은 물론 미술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출강하며 해외 공모전 및 전시 전문 플랫폼 Artdotz를 운영하는 한편,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아트 비즈니스에 진심입니다

유통업계의 미술 시장 진출 본격화

백화점들이 속속 미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체 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
작품을 전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돈을 버는'
사업으로 미술 시장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1

2

1 신세계 백화점의 모바일 앱 안에서는 서울옥션의 디지털 아트 갤러리 메뉴를 만날 수 있다
2 미술품 장터인 아트 페어도 자체적으로 열기 시작한 롯데백화점. 지난 5월 '롯데아트페어 부산'을 개최했다

미술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은 신세계백화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3월 정관의 사업 목적에 미술품의 전시·판매·중개·임대업 및 관련 컨설팅업을 추가하며 미술 사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2월에는 280억 원을 투자해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지분 4.8%를 확보한 데 이어 추가 지분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술품 경매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서울옥션과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백화점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열어 미술품 모바일 경매를 시작했고 경매에 나온 작품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도 제작했다.

백화점 공간을 이용한 자체 미술품 판매도 활발하다. 신세계백화점은 2020년 강남점 3층에 미술 작품을 상설 전시·판매하는 공간인 '아트스페이스'를 연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강남점 메자닌층에 신세계갤러리를 개관하고 첫 전시로 김창열 화백의 작품을 전시, 판매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아트비즈니스실'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상무급 실장에 갤러리 디렉터를 거친 아트 컨설턴트를 영입했다.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던 갤러리는 상시 판매도 함께 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갤러리만이 아니라 롯데백화점 점포 곳곳에서도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본점 매장에서는 가격표가 적힌 미술 작품을 쉽게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역시 자체 앱에 온라인 갤러리관을 만들어 작품을 판매한다. 작품을 설치할 공간에 카메라를 비춰 가상으로 작품을 배치해볼 수도 있고 1천만 원이 넘는 작품도 모바일을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자체 아트 페어 개최, 모바일 경매까지

미술품 장터인 아트 페어도 자체적으로 열기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지난 5월 부산에서 '롯데아트페어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아트 페어를 개최했다. 국내외 12개 유명 갤러리가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순수 미술품을 비롯해 공예 작품과 디자인 제품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이 행사를 국내를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키운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대백화점도 아트 페어 행사와 연계해 미술품 판매에 나섰다. 지난 5월 대구점에서 국제대구아트페어의 프리뷰 행사를 열어 문화홀과 갤러리 H를 전시 공간으로 꾸몄고, 점포 2~3층에는 주요 조각 작품 등을 전시·판매했다. 이어 6월에는 울산국제아트페어 프리뷰 행사를 울산점에서 열어 국내외 작가 작품 300여 점을 전시·판매했다.

이 같은 백화점의 적극적인 행보는 미술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K-ARTMARKET)'은 최근 내놓은 '2022년 상반기 한국 미술 시장 결산' 자료에서 2022년 미술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로 '백화점'을 들기도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유통, 패션 산업 등 타 분야의 미술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면서 "특히 백화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미술품 전시 및 상설 판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5월에는 아트 페어도 개최하며 미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품을 감상·소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화점들이 이처럼 미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데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미술 시장이 성장하면서 미술 작품 구입 수요가 커진 점이 꼽힌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2020년 3천277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9천157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미술 시장 규모는 5천329억 원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를 필두로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불리는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술품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

이런 수요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아트 페어 방문객은 지난해 21만1천 명이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6만 명이 아트 페어를 찾았고 6개 아트 페어 규모도 1천429억 원으로 지난해 538억 원보다 165% 급증하는 등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백화점은 또 미술품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와 함께 미술품 전시를 통한 오프라인 매장의 집객 효과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콘텐츠 강화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만큼 백화점 업계의 미술 시장 진출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역시 "미술 시장 내에서 백화점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 **황희경** 연합뉴스 기자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등을 거쳐 현재 소비자경제부 유통팀에서 유통과 패션, 뷰티업계 등을 담당한다.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생활경제 분야의 트렌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기다린 음악가들

한국인 연주자들, 상반기 국제 콩쿠르 석권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며 대면 경연이 재개되자 한국 출신 음악가들의 콩쿠르 연쇄 수상이 이어졌다.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우승(임윤찬),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우승(최하영),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양인모)을 비롯해 2022년 상반기 25개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 37명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피아노(13), 바이올린(7), 첼로(6)를 비롯해 더블베이스, 기타, 실내악 부문에서도 골고루 입상했다. 주요 우승자들이 밟아온 음악 궤적을 기준으로 삼자면, 윤이상 콩쿠르 우승 이후 성향상 경연 참가가 불투명했던 임윤찬, 제네바 콩쿠르에서 낙방하고 절치부심한 최하영,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으로 이미 국내에서 명성을 알린 양인모 모두 콩쿠르를 '성장' '도약' '자성'의 계기로 삼았다. 입상으로 얻는 공연 기회와 인지도 상승이 향후 전문 연주가 활동의 가능성을 넓힌다지만, 한순간에만 국한한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준우승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사회가 주목하는 구조가 강화된 건 돌아볼 일이다.

1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2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1998년생 최하영이 우승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해마다 바이올린-피아노-성악-작곡 분야를 번갈아 경연하면서 수상 후 커리어나 사무국이 특전으로 제공하는 음반 녹음, 협연 기회로 인해 쇼팽-차이콥스키 콩쿠르와 더불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 콩쿠르로 자리 잡았다. 2017년부터 작곡을 대신해 첼로가 경연에 포함되어 올해가 두 번째 대회다.

퀸 엘리자베스의 여왕, 최하영

최하영은 2011년 브람스 콩쿠르, 2018년 펜데레츠키 콩쿠르에서 우승했지만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는 무명에 가까웠다. 최하영은 현재 고려대 사학과에서 독일사를 연구하는 최호근 교수의 3녀 중 차녀로 부친 유학 시절 독일 빌레펠트에서 태어났다. 한국으로 건너와 초등 교육을 받고 정명화와 장형원을 사사했다. 2010년 올림푸스한국이 사옥 내 250석 규모의 올림푸스홀을 건립하고 주목했던 영재가 최하영이다. 당시 트리오를 함께 했던 언니 최하임(살로메 콰르텟 멤버), 동생 최송하(2016 메뉴인 콩쿠르 준우승) 역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직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으로 건너간 최하영은 퍼셀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프란스 헬머슨과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 문하에 있었다. 현악 명수들로 빼곡한 크레메라타 발티카,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협연하면서 무대 예술가의 자질을 함양했으나 국내 공연 단체 협연 기회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10대 초반, 부천-수원-성남시향과 협연한 게 국내 악단 협업의 전부다.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2021년 제네바 콩쿠르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코로나 기간이 최하영에겐 자신과 첼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실제 공연에서 첼로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자신과 악기를 탐구하는 시간이 계속됐고 금호에서 대여한 악기 이외에 영국 플로리안 레온하르트 펠로십에서 니콜라 베르곤지(c.1800)를 임대해 퀸 엘라자베스 콩쿠르에 대비했다. 1라운드부터 최하영은 야나체크 <동화Pohádka>, 이자이 <그라베>, 보케리니 소나타 과제곡에서 현란한 기량을 보였다. 연주자가 악기를 어떻게 지배해나가는가를 관객이 청각과 시각으로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협주곡과 독주회를 겸해야 하는 준결승에서 숨은 진주가 드디어 조가비 밖으로 나와 빛을 발했다. 브리튼 소나타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활의 테크닉과 핑거링은 '준비된 입상자'를 예견케 했다. 펜데레츠키, 얀센스, 파가니니로 이어지는 복잡한 음악 사조가 최하영식 사운드 메이킹에 쓰일 음식 재료처럼 가지런히 배열됐다. 누구의 연주를 연상시키지 않고, '똑같은 것은 싫다'는 식의 자기 도전이 라운드마다 거듭됐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에서 왕좌 등극을 예고하듯 니콜라 베르곤지의 시원시원하게 뻗어가는 프로젝션이 현지 관객부터 고무시켰다. 결승곡 루토스와프스키 협주곡의 선곡은 화룡점정이었다. 이미 지난해 제네바 콩쿠르 결승 예비곡으로 준비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완료됐고, 결승전에서 최하영의 퍼포먼스는 2015년 쇼팽 콩쿠르 결승에서 조성진이 선보였던 "후회가 남지 않는 연주"를 연상시켰다. 12명의 결승 진출자 가운데 우승자를 가장 먼저 호명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전통 속에서 가장 먼저 불린 것은 결국 최하영의 이름이었다. 한국인, 동양인 최초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우승이었다. 최하영은 오는 9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 투어에 참가한다.

2

1,2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양인모, '다시 초심으로'

5월 29일 폐막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양인모가 우승했다. 16개국 240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친 한국인 최초 우승이었다. 양인모는 결승에서 닐센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고, 국내 연주회를 통해 익히 확인했던 기량이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이후 7년 만의 도전을 통해 양인모는 '배움'의 계기를 콩쿠르의 매력으로 언급했다. 21세기 들어 시벨리우스 콩쿠르의 핀란드 밖 위상은 부침이 있고 우승 특전으로 주어지는 협연과 노출 기회가 예전 같진 않지만, 양인모는 '우승 아니면 손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경연을 적극적인 발전 기회로 삼았다. 파가니니처럼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뿐 아니라 현대 작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아로새기는 작업이 기대된다. 양인모는 11월 최수열·부산시향과 진은숙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6월 2~18일)는 당초 예정보다 1년 늦게 열렸다. 2021년 콩쿠르 사무국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특전을 부여할 북미 악단 협연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연기의 주된 사유로 알렸다. 4년 주기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지망하는 유망주들은 준우승 이상 입상하면 다음 대회 입상자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전역을 투어하면서 경험과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북미 매니지먼트에선 보통 미국 50개 주를 유럽 50개국과 동일시한다. 21세기 들어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제패한 우승자들(스타니슬라프 이우데니치, 올가 케른, 알렉산더 코브린, 노부유키 츠지, 장하오천, 바딤 콜로덴코, 선우예권)의 활약상을 보면, 미국과 유럽 공연 시장에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를 바라보는 대우와 시선은 상이하다. 2005년 양희원, 2009년 손열음이 대회에서 준우승했지만 국내에서도 주최 측이 입상 성과를 흥행으로 끌고 가긴 어려웠다. 국내에서 반 클라이번 콩쿠르 비중을 다시 본 건 2017년 선우예권 우승 때부터다. 그래서 2022년 대회 전, 한국인 연주자에게 2회 연속 우승을 안기진 않으리라는 막연한 전망이 국내 음악 교육계에서도 오갔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 참가자들이 예심에 응했고 준결승에 오른 12명 가운데 4명(임윤찬·김홍기·박진형·신창용)이 한국 국적이었다.

집중의 깊이가 달랐던 임윤찬

임윤찬의 반 클라이번 대회 참가를 두고 국내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염려가 엇갈렸다. 윤이상 콩쿠르 우승으로 병역 특례 자격을 갖췄고 음악에만 몰두하는 자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리란 예상이 있던 반면, 유리한 득점을 보장할 음악과는 성향상 거리를 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호프-쿠프랭-모차르트-쇼팽으로 이어진 1라운드부터 임윤찬은 온오프라인 관객 모두를 매료시켰다. 바로크-고전주의-낭만주의 성향 작품에서 '뜨겁다' '차갑다'로 양분되지 않는 '임윤찬식 감정 조절'이 독특한 음 빛깔로 분출됐다. 작품의 품위를 살리는 신인의 출현에 아티스트 섭외를 담당하는 국제 시장 관계자들도 주시했다.

준준결승 리사이틀의 선곡은 평소 임윤찬이 어땠는가를 증명한 세트리스트였다. 바흐 <음악의 헌정>, 스크랴빈 소나타 2번, 베토벤 <변주곡과 푸가 Op. 35>는 임윤찬이 10대 후반을 어떻게 피아노와 씨름했는가를, 물리적인 시간과 집중의 깊이를 돌아보게 하는 해석이었다. 통상적으로 경연에 참가한 '아시아' '한국인' 피아니스트를 바라보는 심사위원의 관점과 시야에서 벗어난, 국적 배경이 보이지 않는 고급스런 리사이틀리스트가 나타났다. 스승인 손민수는 스크랴빈 소나타 연습에서 왼손만 연습하는 제자를 보고 "음악에 젖어들지 않고 왼손만 차분히 연습하는 절제"를 높이 평가했는데, 기교와 자아를 드러내는 대신 연주자와 관객이 작곡가의 텍스트를 바라보게 했다.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 은둔을 택하다 다시 세상에 나온 폴리니가 이렇지 않았던가. 준결승부터 결승으로 이어지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12곡, 모차르트 협주곡 22번, 베토벤 협주곡 3번,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의 난코스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비행 관제사의 관점처럼 곡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특정 작품에 승부수를 두는 자세와 거리를 뒀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의 휘황찬란한 테크닉과 파워 역시 임윤찬의 클라이맥스는 이럴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했다. 우승 직후 임윤찬에게 쏟아지는 국내의 관심은 쇼팽 콩쿠르 조성진 우승 때와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우리 음악 시장은 "산에 들어가 음악만 하고 싶다"는 실력 있는 음악가의 존재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설령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이 아니었더라도 임윤찬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노출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에 언론과 대중이 호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글 **한정호** 음악 칼럼니스트
월간 <객석>에서 클래식과 무용을 담당했고 일본 오케스트라 연맹, 빈 체로에서 일했다. 런던 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 정책과 매니지먼트 석사를 졸업하고 에투알 클래식 & 컨설팅 대표로 있다.

1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 양인모
2, 3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최하영의 세미파이널 무대와 시상식 모습

R의 법칙으로 이룬 도시 변화

싱가포르 클락키의 숨겨진 위트

Singapore

깨끗하지만 재미없는 도시. 90년대까지 싱가포르를 묘사할 때 늘 등장하던 표현이다. 도시 하나로만 이루어져 넓지 않은 국토의 면적과 이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합쳐진 싱가포르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며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하곤 했다.

© shutterstock

도심 속 거대한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전경.
싱가포르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여행자들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곳이다

1

2

1 싱가포르강의 유람선과 다양한 변화의 역사를 가진 클락키의 모습을 한눈에 담는다
2 덥고 습한 날씨에 야외 활동을 돕는 엄청난 규모의 캐노피

하지만 최근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고층 빌딩 세 개가 거대한 배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형상의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화려한 외관 속에 시민들의 녹색 복지와 환경 친화적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전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열풍을 선도하는 아시아 스팟의 대표 주자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까지, 싱가포르는 끊임없이 도시의 비전을 업데이트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여행의 관점에서는 마리나베이 일대를 여전히 주목하지만, 도시 재생건축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보다 앞서 도시가 가진 가공할 정도의 체계적인 혁신을 앞서 보여준 선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 리버 북쪽에 위치한 클락키Clarke Quay 지역이다. 클라크 스트리트Clarke Street와 리드 스트리트Read Street가 서로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 같은 공간 형태가 특징으로, 싱가포르의 다이내믹한 역사와 여가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세기 클락키의 구성 요소들

클락키의 지명은 1873년부터 1875년까지 '스트레이츠 세틀먼츠Straits Settlements', 즉 동인도 회사가 동남아시아 해협 지역에 설치한 식민지 연합체의 총독이었던 앤드루 클라크 경Sir Andrew Clarke의 이름을 딴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싱가포르 리버는 과거에 선박 무역이 성행하며 싱가포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던 지역이다. 때문에 싱가포르 리버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 시작의 중심에는 1819년, 근대 싱가포르를 개척한 장본인이라 불리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 경Sir 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이 있었다. 그는 싱가포르를 자유 무역항으로 선언했고, 클락키를 포함한 싱가포르 리버의 북쪽 지역은 정부 활동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항은 곧 화물과 사람으로 북적이는 도시의 중심이 되어갔다.

이후 클락키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상 운송의 거점으로 지위를 공고히 했다. 목탄 중개업자, 목재상, 자동차 정비공, 금융업자 등 온갖 분야의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싱가포르 리버는 짐을 싣고 내리는 '통캉Tongkang' '트와코우Twakow'란 이름의 중소형 목조 선박들로 늘 북적였다.

클락키가 있는 이 강의 어귀에는 19세기 유럽과 중국으로 수출되던 각종 향신료와 가공 식품을 보관하던 창고들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1850년대부터 1890년대 사이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폭이 좁고 깊은 2층 구조의 숍하우스shophouse, 즉 가정집과 가게를 겸한 형태의 동남아 특유의 건물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전면에 큰 창문들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인 창고 건물들이다. 숍하우스는 1층의 상업 시설과 2층의 주거 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유럽의 식민지 건축물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래플스 경은 모든 숍하우스에 대해 '5피트의 길'을 내도록 규제했는데, 각 상가 앞에 지붕이 있는 보행길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것이다. '5피트의 길'은 동남아시아의 강한 햇살과 변화무쌍한 날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식료품상, 이발사, 약사 등 각양각색의 노점상들이 모이는 환경적인 계기가 됐다. 래플스 경은 '5피트의 길'을 통해 도시 경관의 규칙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의도치 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특유의 활기를 생산해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싱가포르 거리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풍경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창고 건물들은 182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꾸준히 양산되며 이 지역 고유의 산업 경관을 만들어냈다. 이 심플하고 거대한 건물들은 통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 한편으로 단순한 창고 건물이라 하기 어려운 독창성이 외관에서 느껴지는데,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섞여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리스 양식의 기둥, 둥근 아치, 크고 높은 창문, 영국의 18세기 건축 스타일 중 하나인 팔라디오풍 등을 활용하면서 지붕은 중국식 타일을 쓰고 있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건물로서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이지만 그 특유의 역사와 외형으로 인해 단순한 산업 시설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싱가포르 리버의 정화 사업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상업 무역의 중심 또한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클락키는 쇠퇴의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던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대의 소명을 다한 낡은 산업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둘 리 없었다. 클락키의 재생 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돼 2008년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하 URA)에서 수립한 계획이 2개, 싱가포르 관광위원회Singapore Tourism Board(이하 STB)에서 수립한 계획이 3개가 있었으며 민간 부동산 회사에서도 2회의 리노베이션을 추진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이 클락키의 재생에 관여한 것이다.

싱가포르 리버는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수를 받아내는 하수구이기도 했다. 1950년대 즈음에는 오염이 심해져 100만에 이르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을 충분히 저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전해진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싱가포르 리버의 경제적 역할이 점차 약화되자, 리콴유 총리는 싱가포르 리버의 정화 사업Singapore River Cleanup Program을 지시한다. 그것은 단지 오염된 강의 환

경 정비 사업이 아니었다. 싱가포르 리버의 역할을 산업 현장에서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이자, 정부가 주도해 도시 장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혁신의 과정이었다. 싱가포르 리버 정화 사업은 1987년 9월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그 결과 산업 현장으로서 싱가포르 리버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선박과 산업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됐으며, 거리의 행상들과 무단 거주자들도 자취를 감췄다.

최대한의 유지, 섬세한 복원, 신중한 보수

'깨끗한 도시' 싱가포르를 만드는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재미없는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관광 프로젝트 팀 Tourism Task Force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 재개발이 관광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도심에 집중돼 있던 인구를 분산시키려 주택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당수 건축물들이 파괴됐던 것이다. 대신 싱가포르 리버 정화 사업이 새로운 관광 어트랙션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정부 또한 역사성 보존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클락키를 포함한 싱가포르 리버 일대에 두 가지의 새로운 개발 비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역사성 보존과 관광 산업 재생이었다.

싱가포르 관광상품위원회Singapore Tourism Product Board는 싱가포르 리버를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한 '관광 상품 개발 계획'을 세웠다. 3개의 구역이란 바로 보트키Boat Quay, 로버트슨키Robertson Quay, 그리고 클락키다. 그중에서도 클락키는 건축학적으로 그 역사적인 중요성과 고유성이 도드라지는 곳이었다. URA는 도시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R의 법칙'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R의 법칙'은 최대한의 유지(Retention), 섬세한 복원(Restor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한 보수(Repair)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건축물의 재생은 중국에서 기술자를 고용해 원조 기술 그대로 진행했을 정도로 만전을 기했다. 가스등, 철제 벤치, 강을 따라 정박해 있던 선박들까지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클락키는 '싱가포르 리버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옛 향수를 자극하며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거리로 되살아났다. 1992년 클락키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했을 때 클락키에 입주한 식당과 소매점, 오락 시설들의 한 해 매출은 무려 4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새로운 비전 보고서

그러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클락키 상권 전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다. 그즈음 URA는 싱가포르 리버 계획 보고서에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강변 일대의 쇼핑, 먹거리, 여가 및 오락 시설 일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리버 하구에서부터 서쪽 끝인 킴 셍 로드Kim Seng Road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했고, 1996년에 승인된 새로운 국가 관광 개발 계획인 'Tourism 21'에서는 싱가포르 리버를 '나이트 존night zone'의 테마로 기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클락키는 가족 중심의 마켓에서 힙한 바들이 즐비한 '펍 존pub zone'으로 대대적인 장소성 변신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 클락키의 이미지는 각종 펍과 디스코, 레스토랑, 공장형 아울렛이 모여 있는 관광 명소로 완벽하게 바뀌었다.

싱가포르 도시 재생 추진의 근간이 된 'R의 법칙'은 최대한의 유지(Retention), 섬세한 복원(Restoration), 신중한 보수(Repair)를 의미한다

1,2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포레스트 클라우드에서는 35m 높이 폭포로 청량감을, 클라우드 워크에서는 하늘을 걷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
3,4 로버트슨키에서 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범보트의 모양을 따서 만든 알카프 다리가 나타난다. 형형색색의 이 다리는 필리핀 아티스트 파시타 아바드의 작품이다

하지만 몇 년 후, 시내에 다른 쇼핑 단지가 생겨나며 클락키의 경쟁력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야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클락키의 환경은 동남아시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두기에 큰 핸디캡이 됐던 것이다. 90년대 초부터 클락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최대 부동산 회사 캐피털랜드CapitalLand는 클락키의 미래 타깃은 'PMBs', 즉 전문직Professional, 관리직Managers, 경영직executives and Business people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클락키의 주된 고객이 관광객이냐, 지역주민이냐의 이슈로도 연결된다. 이전까지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비율이 반반 정도였으나 앞으로의 클락키는 지역주민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세운 것이다.

도시 경관을 디자인하라

이를 위해 캐피털랜드는 클락키에 새로운 건축 이미지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 열쇠를 쥐게 된 것은 영국의 건축 회사 알솝Alsop Architects이었는데, 주어진 미션은 두 가지였다. 싱가포르 리버의 워터프런트와 거리 경관을 다시 디자인할 것, 그리고 기후 위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이 가동될 수 있는 실내 공간 없이 싱가포르의 무더운 날씨와 폭우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시킬 것. 알솝은 3가지 건축적 장치를 도입해 이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다.

첫 번째로 '릴리패드lilypad'라는, 수련 잎을 모티프로 한 대臺를 강변을 따라 설치했다. 이것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리버를 더 가까이 즐기면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돼주었다. 두 번째 장치는 '블루벨bluebell'이라는 야간 조명이었다. 블루벨은 번역하면 '실잔대'라는, 청색 꽃이 피는 종 모양의 야생화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처럼 릴리패드 위에 종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마치 초롱불을 연상시키는 블루벨은 실제로 과거 싱가포르 리버의 밤을 밝혔던 전통 중국식 등을 추억하며 만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장치는 '엔젤Angels'이다. 에어컨 없이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클락키 내부의 모든 거리와 광장을 덮도록 상가 지붕과 연결해 설치한 엄청난 규모의 캐노피다. 우리나라 전통 시장에서도 많이 보이는 장치이지만, 클락키의 엔젤은 조금 더 특별하다. 소형 선풍기와 인공 폭포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장착됐다. 실제로 이 장치에 오후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새롭게 단장한 클락키는 2006년 말 다시 개장했고, 이전에 비해 임대 수익이 2배로 올랐다. 이후로도 STB는 야간 여가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전략에 맞춰 싱가포르 리버의 조명과 도로 시설물, 안내판을 새로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세련된 바와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고 야경이 아름다운 클락키는 도시 개발에 관여하는 민과 관이 제시한 뚜렷한 비전이 항상 방향계가 되어 세부 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그렇기에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고도 과거와 단절되거나 도시의 다른 지역들과 괴리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클락키는 정부가 주도한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지 버려진 산업 시설을 재생한다거나 환경을 정화한다는 단편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도시를 계획하는 전체 비전과 이미지에 맞추어 싱가포르의 근원과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역항으로, 다시 가족 여가 공간에서 젊음의 거리로 변신을 거듭하며 물리적 환경과 그 속에서 영위됐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동안, 클락키가 싱가포르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라는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클락키는 정부가 주도한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근원과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글 **김지나** 작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 전반을 다뤘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문화로 도시 읽기』가 있다.

수직 정원인 수퍼트리는 밤이 되면 음악에 맞춰 화려한 조명 쇼를 선보인다

2022 연극만원 시리즈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만남과 이별이 흐르는 간이역에서 펼쳐지는
울고 웃는 삶의 이야기

씨 어 터 맨

THEATERMAN

8.13~14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전석 10,000원

토·일 2pm, 6pm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 SEONGNAM •

BEYOND

74 **성남의 공간**
모두를 위한 문화 놀이터
성남생활문화공간 Place C

78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80 **캘린더**

모두를 위한 문화 놀이터

성남생활문화공간 Place C

집 근처에서 부담 없이 문화예술 강좌를 듣거나, 이웃과 소소한 취미를 함께하며 공감대를 나누고 싶다면? 동네 어디선가 한 번쯤 마주쳤을 그곳, Place C[1]를 찾아보자. 성남시 곳곳마다 촘촘히 자리한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Place C는 기존 노후 시설이나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문화예술과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조성 중인 공간이다. 올 하반기에도 총 14개 공간, 76개의 거점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1

2

Place C의 모든 프로그램은 성남문화재단과 총괄 문화기획자, 각 공간 운영 문화기획자들이 공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우선 자연 속 사색과 예술을 통한 자아실현을 체험하고 싶다면 <샛별책놀터>를 추천한다. 분당동 아파트 단지 사이, 당골공원 중심에 자리한 <샛별책놀터>는 자연을 배경으로 예술과 자연,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예술 감성 글쓰기' '내 마음의 여행 풍경 스케치' '자기돌봄, 생태감성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고, '미니분재 만들기' '에코아트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주변의 계절별 생태 환경과 자연을 체험하며 내면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야외 서가에 비치된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을 읽으며 숲 속 북카페만의 싱그러움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다.

판교 화랑공원 숲 속에 위치한 화랑책놀터 역시 북카페 역할을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생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강점이다. 화랑공원 주변 자연을 관찰하는 <마루샘과 함께하는 숲체험 놀이>, 따뜻한 가족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뒹굴뒹굴 작은 영화제>,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 염색 체험 <섬유야 놀자> 모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초보자를 위한 기타 교실, 인물화와 캐리커처 그리기, 캘리그라피, 성남 역사 이야기 등 예술·인문학 강좌도 풍성하다.

'생활예술스테이션'은 성남의 대표 랜드마크인 탄천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통기타와 우쿨렐레, 오카리나와 같은 무료 악

PLACE C의 C는 Citizen(시민), Creativity(창의성), Culture(문화), Community(공동체, 지역사회)의 함축된 표현으로 시민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해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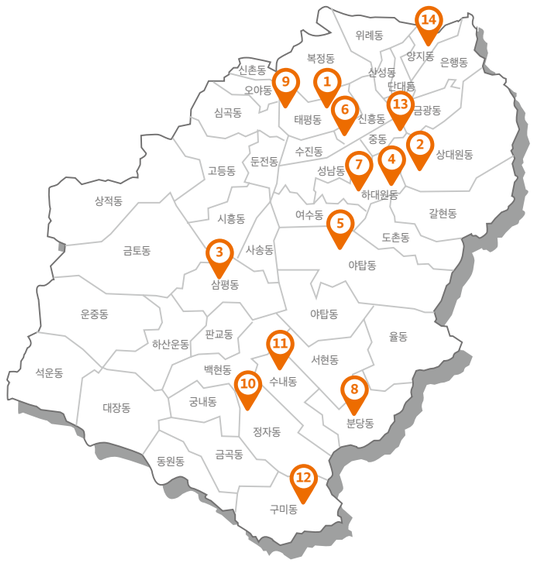
1,3 샛별책놀터 야외공간에서 진행된 <미니분재 만들기> 수업 현장
2 분당동 당골공원에 자리한 샛별책놀터

3

태평마실

중원도서관 중원꿈톡톡

중원청소년수련관 썸썸플레이스



PLACE C
성남생활문화공간

Place C (성남생활문화공간)의 의미
Creativity (창의성)
Citizen (주민/시민)
Culture (문화)
Community (지역사회)

1 태평마실
수정구 남문로 109
2 성남하이테크 문화마루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2층
3 화랑책놀터
분당구 삼평동 화랑공원 내
(구)교통안전교육장
4 중원청소년수련관
중원구 둔촌대로 332 1층
5 생활예술스테이션_야탑
분당구 야탑동 만나교회 앞 교각 밑
6 수정왁자지껄
수정구 탄리로 57
7 중원꿈톡톡
중원구 둔촌대로 68
8 샛별책놀터
분당구 분당동 37
9 생활예술스테이션_태평
수정구 태평동 7049-1
10 생활예술스테이션_정자
분당구 정자동 궁내-느티 사거리
11 생활예술스테이션_수내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
12 생활예술스테이션_돌마
분당구 구미동 돌마교사거리
13 중앙동 복지회관
중원구 광명로 264번길 23
14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수정구 산성대로 486

기 강좌, 음악 동호회의 연습과 버스킹이 가능하다. 돌마교와 정자교, 수내교, 야탑교, 태평스테이션(수정구 태평동 7003 물놀이장 옆)까지 총 5개 장소가 시민 뮤지션을 기다린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토요일마다 탄천의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학습 프로그램도 기억해두자.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청소년부터 실버 세대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우선 중원도서관 내에 자리한 <중원꿈톡톡>은 지난달 문을 열자마자 동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나만의 오디오북 만들기,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 젬베 배우기 등의 취미 활동부터 청소년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마을 일상을 나누고 교류하는 프로그램까지 세대를 포용하는 구성이 특징이다.

동네마다 문화예술이 숨 쉬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내 <썸썸플레이스>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공감, 유쾌한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청소년들의 활력으로 가득한 <놀면 무舞하니 댄스배틀> <쉘위댄스>, 박자감을 배우며 드럼의 기초부터 다질 수 있는 <쿵따두구두 드럼교실>, 스마트폰 영상 촬영부터 결과물 전시까지 경험할 수 있는 <무지개라벨> 등 에너지 넘치는 예술 활동이 가능하다.

나만의 무대를 꿈꿔본 청년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무엇이든 미니콘서트>를 신청해보자. 썸썸플레이스의 공간 문화기획자들이 신청자가 원하는 콘셉트에 맞춰 1시간 내외의 토크 & 공연 콘서트를 꾸며주는 것은 물론, 무대 대관과 콘서트의 기획, 진행까지 모두 무료 지원된다. 문의는 썸썸플레이스 인스타그램 '@placesome_'.

플리마켓이나 공예 활동에 관심이 많다면 태평2동에 위치한 <태평마실>을 추천한다. 이곳은 주민들의 취미 생활과 모임 활동을 기반으로, 마을과 사회의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바느질과 금속·냅킨·리본 공예 등의 생활공예,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환경과 리사이클링의 의미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펼쳐진다.

성남산업단지 직장인이라면 <성남하이테크문화마루>에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며 워라밸을 가꿀 수 있다. 성남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드럼과 통기타 교실, 꽃차와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가죽 공예 등은 일상의 '일터'를 '놀이터'이자 '삶터'로 바꿔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성남미디어센터와의 협업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내 <썸썸플레이스>에서는 동영상 제작 교육, 화랑책놀터와 샛별책놀터에서는 라디오 제작과 라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과정 교육이 진행된다.

Place C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간에서 공간으로, 끊임없는 문화의 연결이 새롭게 이어지는 곳. Place C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예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사진 **최재우**

공간 및 강좌 안내
https://placec.oopy.io/성남시 배움숲 sugang.seongnam.go.kr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진행되며, 선착순 신청으로 정원 완료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강좌 &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스쿨

성남문화재단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8월 16일(화)부터 'SNART예술영재아카데미'와 '창의융합교육' 두 분야의 어린이 정규 강좌를 시작한다. 예술영재아카데미 음악 강좌는 성남시립예술단과 성남아트센터 기획공연 등과 연계해 진행하고, 미술과 코딩 강좌 역시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예술가적 자질을 키움과 동시에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융합교육은 예술역량 중심의 놀이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레 예술과 가까워지고,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다.

성남미디어센터도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미디어스쿨을 준비했다. 8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2주간 미디어아트, 영상,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등 15개 강좌를 진행한다.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문제점까지 함께 논의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강좌, 디지털 웹툰 만들기, 작곡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자신만의 BGM 만들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구성했다.

아카데미 어린이 정규 강좌와 미디어스쿨 모두 강좌별 일정 및 인원이 달라 사전에 홈페이지(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성남미디어센터 www.snmedia.or.kr)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접수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강좌는 7월 26일(화)부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스쿨은 7월 11일(월)부터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혹은 현장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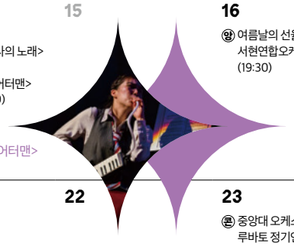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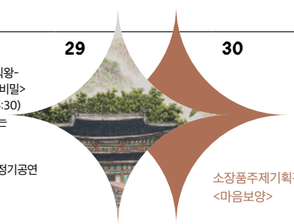
성인을 위한 여름 특강도 풍성하다. 성남아트센터 성인 아카데미는 9월 정규 학기 시작에 앞서 8월 9일(화)부터 여름 특강(각 4회)을 진행한다. 종합예술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는 황지원의 <오페라 살롱> 여름 특강은 유럽 각지의 오페라 축제로 음악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 베로나,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과 브레겐츠에서 열리는 최고의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 칼럼니스트 황장원의 <클래식 포레스트> 여름 특강은 바로크에서 낭만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과 그들의 대표작을 살펴보고, 사회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까지 짚어본다. 작곡가 김상헌은 <클래식 음악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을 통해 베르디와 이탈리아 오페라, 쇼팽과 발레, 브람스와 독일 교향곡 등 유럽 클래식 음악의 주요 흐름을 알려준다.

미술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여름 특강도 준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MZ세대를 포함해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커진 지금, 윤우학 교수의 <미술의 이해와 감상> 여름 특강은 현대미술 감상과 접근법을 배우며 자신만의 시각과 소양을 차근차근 갖출 수 있는 과정이다. 최정주의 <아트 큐레이션-테마로 만나는 그림 이야기>에서는 고향, 여인, 풍경, 철학 등 네 가지의 테마별로 세 명의 화가들을 선별, 그들의 작품과 그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한다. 모두 7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8월 1일부터는 정원 마감 시까지 전화로 잔여 인원 문의 후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31-783-8156 (아카데미 운영팀)

8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오 오페라하우스 콘 콘서트홀 앙 앙상블시어터 M 미디어홀 C 성남큐브미술관 B 반달갤러리 상 상설전시실 아 성남아트리움 ◇ 성남문화재단 기획 프로그램	**2**	**3** 콘 수원 가톨릭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M◇ 독립예술영화관 <니 얼굴> (19:00)	**4**	**5** 오◇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앙 김은희·박소영 피아노 듀오 (19:30)	**6** 오◇ 오페라 <사랑의 묘약> (15:00) 콘 성남국제윈드페스티벌 (17:00)
7 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IX- 스쿨 클래식 시리즈 더울림 앙상블 (15:00)	**8**	**9** 앙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1주년 기념공연 (19:30)	**10** 콘 코로나19를 지켜낸 영웅들 (19:30) 앙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1주년 기념공연 (19:30) M◇ 무료기획상영 <마지막 4중주> (14:00) M◇ 독립예술영화관 <에펠> (19:00)	**11** 콘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9:30)	**12** 오 육군창작뮤지컬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 (19:30) 콘 플레이어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13** 오 육군창작뮤지컬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 (14:00, 19:00) 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IX- 트리오 MEG (15:00) 앙◇ 연극만원<씨어터맨> (14:00, 18:00)
14 오 뮤지컬 <블루헬멧:메이사의 노래> (14:00, 19:00) 앙◇ 연극만원<씨어터맨> (14:00, 18:00)	**15**  연극만원 <씨어터맨>	**16** 앙 여름날의 선율: 서현연합오케스트라 (19:30)	**17** 오 미드썸머나잇 무비 페스타 (19:00) 콘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전 (19:30) M◇ 독립예술영화관 <고양이들의 아파트> (19:00)	**18** 콘◇ 마티네 콘서트 (11:00) 앙 시민과 함께하는 창작 영화제 (19:00)	**19** 오 최현우 <THE BRAIN> (15:30, 19:30) 콘 제2회 같음페스티벌 'Fresh Start' (19:30) 아◇ 이매방 춤의 기억 (19:30)	**20** 오 최현우 <THE BRAIN> (13:00, 17:00) 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 이야기-너클리 9 (19:30) 앙 권마리 피아노 독주회 (15:00)
21 콘 드림위드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앙 장진영 피아노 독주회 (15:00)	**22**	**23** 콘 중앙대 오케스트라 루바토 정기연주회 (20:00)	**24** 앙 가천대 성악과 강은현 교수 제자음악회 (19:30) M◇ 무료기획상영 <스타 이즈 본> (14:00) M◇ 독립예술영화관 <어거스트 버진> (19:00)	**25** 콘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앙◇ '나농모락 기쁨모락' - 여름밤, 다스름 (19:30)	**26** 앙 날고기는 프로젝트 창단 공연 (19:30)	**27** 오 가족뮤지컬 <급식왕- 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11:00, 14:00, 16:30) 콘 콘페로 카메라타 멘델스존 시리즈 IV (19:30) 앙 그레이스성악회 정기연주회 (15:00)
28 오 가족뮤지컬 <급식왕- 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11:00, 14:00, 16:30) 콘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19:30) 앙 한신유스콰이어 정기공연 (18:00)	**29**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30**	**31** M◇ 독립예술영화관 <단편영화 II > (19:00)			

문의: 031-783-8000

성남큐브미술관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7월 22일~9월 25일	상◇ 상설전시실
<디지로그展 : 해방>	7월 15일~10월 2일	C◇ 기획전시실
2022 성남중진작가전 2 <유미영: 잇고 또 잇고>	8월 5일~9월 25일	B◇ 반달갤러리

※ 전시 관람 시간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전시명	전시기간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1주년 기념 전시	8월 7일~8월 21일
2022 경기청년작가 선정 초대전	8월 24일~9월 2일
이혜경 개인전	8월 24일~9월 2일
coming soon	8월 24일~9월 2일
제38회 한국수채화 공모대전	9월 3일~9월 13일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미술공예부문/ 현대공예디자인부문	9월 14일~9월 30일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춤전

이매방 춤의 기억

티켓 전석 1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2022. 8.19Wed 7:30PM

송수영, 쥐라산맥에서 살았던 너도밤나무-연필로 그린 쥐라산맥#12, 2020, 각 23x32cm(총 13점), 종이에 연필, 몽당연필

송수영 작가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조소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수영은 설치, 사진, 드로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하지 못하는 사물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과 흔적을 소환하여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다. <깃발-나무>2021, <젓가락 복음>2019, <잃는 방법>2018, <봄봄 상상>2013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성남큐브미술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소마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김종영미술관, 성곡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 지면에서는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을 소개합니다